



■ 정책자료 2015-01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미곤 · 정경희

【책임연구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자료 2015-01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8월 31일
저자 김미곤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범신사
정가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91-2 93330

발간사 <<

우리사회의 50대는 대부분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이다. 즉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로 2015년 현재 50대 인구는 전 인구의 16.0%인 약 81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력이 보편화된 세대로서 우리사회의 경제 발전에 따라 고용률이 높았던 세대이다. 하지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노후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고용 또한 걱정하게 된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후기노년기에 있는 부모와 함께 노년기를 보내게 될 수 있게 된 첫 세대이기도 하다. 더불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낯선 세대로서 윗세대에 대한 부양의 책임과 더불어 자녀의 부양 문제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하며,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의 와중에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 세대이다.

한편, 50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제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의 내용 및 서비스 기대수준 등이 변화했고 이는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 대한 태도 및 행태, 노후소득의 구성과 규모, 건강상태, 가치관 등은 현노인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50대의 규모와 특성변화라고 하는 양적 측면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의 특성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수준 향상과 방향성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성장 모멘텀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진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50대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숙제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준비된 활기찬 노후를 향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염두에 두고 평생동안 유지해왔던 일과 생활의 균형 여부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점검하고 노년기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50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검토와 전화조사에 기초하여 50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김미곤 선임연구위원과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제2장 생활습관 및 여가활동	19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21
제2절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37
제3장 가족관계 및 노후생활	45
제1절 가족관계	47
제2절 주요 관심사	51
제3절 노후생활 전망과 준비	54
제4장 가치관	71
제1절 부양관	73
제2절 선호하는 재산처리 방식	79
제5장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83
제1절 삶의 만족도	85
제2절 행복도	88

제6장 결론	93
제1절 요약	9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7
참고문헌	99
부록	101

표 목차

〈표 1-1〉 조사개요	15
〈표 1-2〉 모집단 50대 인구수 및 표본수	15
〈표 1-3〉 응답자의 혼인 및 가족형태	16
〈표 1-4〉 응답자의 가구 소득수준	16
〈표 1-5〉 응답자의 혼인 및 가족형태	17
〈표 2-1〉 50대의 특성별 흡연율	22
〈표 2-2〉 연령대별 흡연자수 및 현재 흡연율 추이 : 만 19세 이상, 2010~2013	24
〈표 2-3〉 50대의 특성별 음주습관	26
〈표 2-4〉 연령대별 월간 음주율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28
〈표 2-5〉 50대의 특성별 운동습관	30
〈표 2-6〉 연령대별 걷기 실천율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32
〈표 2-7〉 50대의 특성별 주관적 건강수준	34
〈표 2-8〉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인지를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36
〈표 2-9〉 50대의 특성별 문화활동	38
〈표 2-10〉 연령대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추이 : 복수응답, 만13세 이상, 2011년 및 2013년	40
〈표 2-11〉 50대의 특성별 모임 참여 수	42
〈표 2-12〉 연령군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	43
〈표 3-1〉 50대의 특성별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대화의 충분성	49
〈표 3-2〉 50대의 특성별 현재의 가장 큰 걱정거리(불안요인)	53
〈표 3-3〉 50대의 특성별 향후 5년 이내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족 내 변화	56
〈표 3-4〉 50대의 특성별 자금 마련 방법	59
〈표 3-5〉 50대의 특성별 예상되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	62
〈표 3-6〉 50대의 특성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	65
〈표 3-7〉 50대의 특성별 노후자금을 위해 확보한 자산(부동산 포함)	68
〈표 4-1〉 50대의 특성별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74
〈표 4-2〉 50대의 특성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에 대한 태도	77
〈표 4-3〉 연령군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	78
〈표 4-4〉 50대의 특성별 이상적인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태도	80
〈표 5-1〉 50대의 특성별 삶의 만족도	86

〈표 5-2〉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일반국민조사, 2014년	88
〈표 5-3〉 50대의 특성별 행복도	89
〈표 5-4〉 연령대별 행복도 : 일반국민조사, 2014년	91

그림 목차

[그림 1-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3
--------------------------------------	----

1.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대상 연령층인 50대는 2015년 현재 전 인구의 16.0%인 약 81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들의 은퇴에 따라 노동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주택가격 하락, 사회보장지출 증가, 부양비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50대(베이비 붐 세대)의 생활습관, 가족관계, 노후생활, 가치관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에 50대가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연구방법

- 선행 연구 검토
- 50대의 생활습관 및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1,000명 대상의 전화조사 실시
 - 조사방법 : 무선 전화조사(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 적용된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 활용
 - 표본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 신뢰수준 : 95%±3.1%p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한계, 예산 한계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50대 한정하여 조사.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50대의 특성별 비교분석에는 무리가 없음.

-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사시점의 차이, 표본의 차이, 조사문항의 차이 등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타 연령층과의 비교자료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필요가 있음.

2. 생활습관 및 여가활동

가.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 흡연

- 50대의 경우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부터 '전혀 피우지 않는다'까지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1%로 다수로 나타나고 있음.
 -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14.1%이고,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67.7%
- 특성별로 살펴보면,
 - 첫째, 취약지역 및 계층의 흡연율이 높음.
 - 둘째, 연령별 흡연율은 30대까지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셋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음주

- 50대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음주는 하는 비율이 86.0%이고, 6회 이상 음주비율은 2.2%로 나타남.
- 특성별로 살펴보면,
 -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고 위험 음주습관을 지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주 6회 이상 고위험 음주비율이 높은 유형으로는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12.5%), 미혼(10.0%), 1인가구(8.0%), 자녀가 없는 50대(7.7%), 중졸 이하(5.4%), 이혼·별거·사별(5.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2011년 이후 연령대별 월간 음주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 운동습관

-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50대의 비율이 22.5%로 조사되었음.
- 운동습관 관련 주요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나타남.

□ 주관적 건강수준

- 50대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1.3%,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18.7%
- 특성별로 살펴보면,
 -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일을 하지 않는 50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임.

나.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 문화생활

- 50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4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 문화활동을 하는 비율은 아주 가끔 한다가 38.6%로 가장 높고 사실상 하지 않는다 30.8%임.

○ 특성별로 살펴보면,

-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활동 향유 정도가 낮음.
- 둘째, 문화활동이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미혼,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임.

□ 사회활동

- 50대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의 개수는 3개가 22.0%로 가장 많았고 2개 20.1%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5.6%임.

○ 사회활동관련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활동 정도가 낮음.
- 둘째, 사회활동이 낮은 집단은 여성,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미혼,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임.

3. 가족관계, 노후생활 및 가치관

- 50대의 4명중 3명은 가족과의 대화의 충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50대의 대부분(90.9%)이 현재 걱정거리(불안요인)를 갖고 있으며, 자녀 교육 및 결혼(28.8%), 나(배우자)의 건강(26.4%)와 은퇴후 생계(23.9%)와 같이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고민과 더불어 자신과 배우자의 노화진전에 따른 건강강화와 생계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

- 자녀의 결혼비용(43.0%)과 가족 생활비(13.7%),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12.7%)를 향후 5년 이내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대부분인 90.9%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준비는 부족한 상태로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내 변화에 대하여 4명중 1명만이 저축 활용(26.2%)을 생각하고 있고, 경제활동(38.8%)이나 부동산 처분(15.7%), 빚을 내거나 가족 및 타인에게 부탁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유사한 맥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에 비하여 실제로 확보한 액수가 적으며, 이는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임.
-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및 기능약화(46.9%)와 경제적 어려움(29.3%)이 절대적이며, 무료함,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음.
- 50대는 노부모에 대해서는 다수인 71.0%가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기간이 길어, 결혼할 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1.6%에 달하고 있음.
- 특성별 차이도 두드러져,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가족관의 대화도 충분하며 참여하는 모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가 충분하거나 참여하는 모임이 많아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수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50대일수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액수를 높게 예상 및 준비를 하고 있고, 자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큼.
- 같은 50대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 50대의 경우 자신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행복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음.
 - 둘째,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임.

5. 요약 및 결론

- 50대의 대다수(81.3%)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5%에 이르고 있고, 매일 흡연율이 14.1%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 건강하지 못함은 개인차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흡연율 감소정책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50대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 달에 문화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69.4%이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활동 향유 정도가 낮고, 사회활동도 미약함. 이를 감안한 문화바우처 등의 확대가 필요.
- 50대의 다수가 가족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완전 은퇴 상태에 달하여 사회관계의 축소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5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에 비하여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액수가 적고, 또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액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을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걱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매우 큼.
 - 부족한 소득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실적임.
 - 자녀의 결혼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현재 50대의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의 결혼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됨.
-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50대를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저소득층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집단이 주요 정책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주요용어 : 50대, 생활습관, 문화생활, 사회활동, 가족관계, 노후준비, 가치관, 삶의 만족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층은 50대이다. 2015년 현재 50대 인구는 전 인구의 16.0%인 약 81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추정은 추계방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통계청에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2015년 인구수는 50,617,045명이며, 50대 (50~59세) 인구수는 8,113,253명으로 추정되었다(통계청, 통계표ID : DT_1B01001).

현재의 50대와 제1차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간에는 연령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¹⁾.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는 총인구의 약 14.3%인 약 714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교육수준(고졸 이상 74.6%)과 고용률이 비교적 높다. 2012년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에 의하면, 고용률은 75.5%로 이전세대('46~'54년생)의 59.5% 보다 높고, 이후세대('64~'72년생)의 76.0%와 유사한 수준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자녀 및 부모부양, 은퇴 자금 등에 부담을 느끼며, 절반 이상(53.7%)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연금 준비율은 37.3%이며, 다층소득보장을 갖춘 경우는 4.8%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 외에도, 제1차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감소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10~'15년 은퇴자가 53만명인 반면에, '15~'20년 은퇴자는 98만명 예상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하여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S. Dent, Jr)가 이야기하는 소위 '인구 절벽(The Demographic Cliff)'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 OECD(2012)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 그러나 50대의 대부분이 제1차 베이비 붐 세대이고, 1964~1965년생도 이들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50대와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6~'10년간 4.2%에서 4.1%('11~'20), 2.8%('21~'30), 그리고 '31~'40년간에는 1.7%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노후준비로 인한 자산시장 변동 가능성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부채비율과 부동산 보유 비중으로 인해, 은퇴 후 유동성 압박에 따라 자산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일본은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시작된 1990년부터 미국은 2007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셋째,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09)은 베이비붐세대 상용근로자 은퇴로 총 7조 7천억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2009)는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년 대비 '20년 총지출이 37%증가하고, 총세입은 15%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째, 부양비가²⁾ 증가될 것이다. 2000~2011년까지는 총부양비가 감소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최저를 기록한 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총부양률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2%에서 2050년 71.0%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KOSIS). 부양비 증가는 가구의 생활수준 저하 및 실질적 빈곤 증가로 이어져,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20년간은 우리 역사상 마지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저부양비 기간이다. 저부양비 기간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기회의 활용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0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경험을 밑바탕으로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 대한 태도 및 행태, 노후소득의 구성과 규모, 건강상태, 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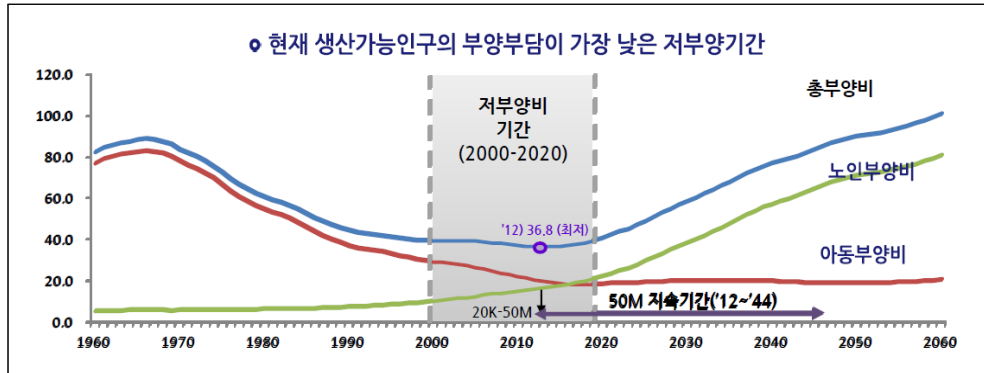
2)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 총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로 구성된다.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그림 1-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주 : 저부양비 기간의 20K는 소득2만불을, 50M은 총인구수 5천만명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염두에 두고 평생동안 유지해왔던 일과 생활의 균형과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점검하고 노년기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50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검토와 전화조사에 기초하여 50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50대의 생활습관 및 여가활동을 다루고, 제3장에서 가족관계와 노후생활, 제4장에서 가치관, 그리고 제5장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살펴 본 후 제6장에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 검토와 전화조사 실시이다.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50대의 생활습관 및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한계, 예산 한계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50대 한정하였기 때문에, 50대의 생활습관 및 인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분석을 증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50대의 특성별 차이를 확인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타 연령층과의 비교는 기존 연구 및 선행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타 연령층과 비교분석은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조사시점의 차이, 표본의 차이, 표본수의 차이, 설문문항의 차이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점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전화조사 주요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수준, 문화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는 자녀와의 관계,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노후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향후 5년 내 경제적 부담 항목, 자금 마련 계획, 노후 생활에서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산 정도 등을 설문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모 부양의식, 자녀부양 책임정도, 재산 처리 방식 등을 통하여 가치관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을 통하여 삶의 보람정도를 확인코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 성별, 결혼여부, 자녀수, 가구형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소득, 학력, 근로여부, 직업 등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조사(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 적용된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은 $95\% \pm 3.1\%$ 이다.

〈표 1-1〉 조사개요

구분	조사개요
① 조사대상	전국 50대 성인남녀
②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③ 표집틀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④ 유효 표본	총 1,000명
⑤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0\%P$
⑥ 표본 추출	성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⑦ 조사 지역	전국
⑧ 조사 기간	2015년 5월 13일 ~ 5월 26일
⑨ 수행 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지역별 성별 표본할당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2010년 인구센서스의 지역별 성별 비율을 이용하여 표본의 지역별 성별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표 1-2〉 모집단 50대 인구수 및 표본수

구분	모집단 인구수(50~59세)1)			표본수(50~59세)		
	계	남	여	계	남	여
서울	1,369,903	652,012	717,891	208	99	109
부산	561,134	269,146	291,988	85	41	44
대구	348,538	169,965	178,573	53	26	27
인천	357,856	181,289	176,567	55	28	27
광주	178,592	87,523	91,069	27	13	14
대전	194,050	96,757	97,293	30	15	15
울산	152,411	78,406	74,005	23	12	11
경기	1,382,108	703,355	678,753	210	107	103
강원	217,037	108,693	108,344	34	17	17
충북	204,792	103,292	101,500	31	16	15
충남	254,487	128,416	126,071	39	20	19
전북	238,431	117,437	120,994	36	18	18
전남	239,747	119,401	120,346	36	18	18
경북	369,502	183,163	186,339	56	28	28
경남	430,347	216,790	213,557	66	33	33
제주	65,891	33,075	32,816	11	6	5
합계	6,564,826	3,248,720	3,316,106	1,000	497	503

주 : 1)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비율이 92.2%로 가장 높고, 사별 2.6%, 이혼 2.4%, 별거 0.8%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의 경우 2명이 66.4%로 가장 많고, 1명 16.5%, 3명 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형태는 자녀 동거가구가 64.0%로 가장 많고, 부부가구 2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응답자의 혼인 및 가족형태

구분		〈전 체〉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20)	2.0
	유배우(동거)	(922)	92.2
	사별	(26)	2.6
	이혼	(24)	2.4
	별거	(8)	.8
자녀 수	자녀없음	(13)	1.3
	1명	(162)	16.5
	2명	(651)	66.4
	3명	(136)	13.9
	4명 이상	(18)	1.8
가구형태	1인가구	(50)	5.0
	부부가구	(288)	28.8
	자녀동거가구	(640)	64.0
	기타	(21)	2.1
	귀촌동거생활	(1)	.1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 52.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하층 19.4%, 중상층 13.7%로 나타나고 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699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가장 높고, 300~699만원 18.4%, 400~499만원 16.6%로 나타났다.

〈표 1-4〉 응답자의 가구 소득수준

구분		〈전 체〉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35)	13.5
	중하층	(194)	19.4
	중간층	(521)	52.1
	중상층	(137)	13.7
	상위층	(13)	1.3

구분		〈전 체〉	
		〈사례수〉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	4.2
	100~199만원	(81)	8.1
	200~299만원	(152)	15.2
	300~399만원	(184)	18.4
	400~499만원	(166)	16.6
	500~699만원	(208)	20.8
	700~999만원	(101)	10.1
	1000만원 이상	(66)	6.6

학력은 대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47.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졸 41.1%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유무의 경우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5%,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29.3%), 서비스업 종사자(20.3%), 자영업자(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응답자의 혼인 및 가족형태

구분		〈전 체〉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11)	11.1
	고졸	(411)	41.1
	대졸 이상	(473)	47.3
	무응답	(5)	.5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65)	26.5
	일을 하고 있다	(735)	73.5
직업	관리자	(64)	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	6.9
	사무 종사자	(215)	29.3
	서비스 종사자	(149)	20.3
	판매 종사자	(52)	7.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4)	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5)	6.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1.2
	단순노무 종사자	(4)	.5
	군인	(33)	4.5
	자영업	(77)	10.5
	프리랜서	(2)	.3
	종교인	(2)	.3
	모름/무응답	(8)	1.1



제2장

생활습관 및 여가활동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제2절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2

생활습관 및 여가활동 <<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1. 흡연

50대의 흡연 행위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부터 '전혀 피우지 않는다'까지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1%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14.1%이고,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67.7%이다 (<표 2-1> 참조).

50대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매일 피운다가 26.4%, 가끔 피운다가 6.8%인데 비해 여성은 매일 피운다가 2.0%, 가끔 피운다가 0.8%에 불과하여 남성이 여성 비해 흡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전반부가 50대 후반부 보다 '매일 피운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주지역에서는 도지역(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혼인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혼·별거·사별의 경우가 유배우나 미혼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매일 피운다'의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대졸 이상에서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는 금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에서는 자녀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경우보다 매일 흡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형태에서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의 경우가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별 흡연율 특징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계층이 상승하면서 낮아지다가 상위층에서 다시 상승하는 'U'자 형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저소득층(25.2%), 중하층(15.5%), 상위층(15.4%) 순이다. 금연비율의 경우 상위층이 23.1%로 가장 높고, 저소득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199만원인 경우가 25.9%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6.7%로 3번째로 높다. 전반적으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표 2-1〉 50대의 특성별 흡연율

(단위 : %, 명)

구분		매일 피운다	가끔 피운다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전혀 피우지 않는다	계
전체		14.1(141)	3.8(38)	14.4(144)	67.7(677)	100.0(1000)
성별	남	26.4	6.8	28.8	38.0	100.0(497)
	여	2.0	0.8	0.2	97.0	100.0(503)
연령	50~54세	15.8	3.5	13.6	67.2	100.0(405)
	55~59세	12.9	4.0	15.0	68.1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12.0	4.3	14.9	68.8	100.0(208)
	광역시	13.6	4.4	12.5	69.6	100.0(273)
	도	15.2	3.3	15.2	66.3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13.5	5.4	10.8	70.3	100.0(111)
	고졸	14.1	3.2	10.9	71.8	100.0(411)
	대졸 이상	14.0	4.0	18.2	63.8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15.0	10.0	0.0	75.0	100.0(20)
	유배우(동거)	13.8	3.8	15.0	67.5	100.0(922)
	이혼·별거·사별	19.0	1.7	10.3	69.0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15.4	7.7	23.1	53.8	100.0(13)
	1명	16.0	4.3	9.3	70.4	100.0(162)
	2명	14.0	3.1	15.2	67.7	100.0(651)
	3명	12.5	5.1	17.6	64.7	100.0(136)
	4명 이상	11.1	5.6	16.7	66.7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24.0	4.0	6.0	66.0	100.0(50)
	부부가구	15.2	4.2	11.8	68.9	100.0(289)
	자녀동거가구	13.1	3.6	16.6	66.7	100.0(640)
	기타가구	4.8	4.8	4.8	85.7	100.0(21)

근로유무별 흡연율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16.7%,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6.8%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흡연하는 비율이 높고, 직업에 따라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0.8%, 자영업 18.2% 순으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계속

구분		매일 피운다	가끔 피운다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전혀 피우지 않는다	계
전체		14.1(141)	3.8(38)	14.4(144)	67.7(677)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25.2	3.7	9.6	61.5	100.0(135)
	중하층	15.5	4.1	16.0	64.4	100.0(194)
	중간층	12.5	3.6	14.2	69.7	100.0(521)
	중상층	7.3	3.6	16.8	72.3	100.0(137)
	상위층	15.4	7.7	23.1	53.8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6.7	2.4	2.4	78.6	100.0(42)
	100~199만원	25.9	3.7	9.9	60.5	100.0(81)
	200~299만원	14.5	5.9	13.8	65.8	100.0(152)
	300~399만원	18.5	3.3	13.6	64.7	100.0(184)
	400~499만원	12.7	4.2	14.5	68.7	100.0(166)
	500~699만원	10.1	3.4	16.3	70.2	100.0(208)
	700~999만원	9.9	4.0	22.8	63.4	100.0(101)
	1000만원 이상	7.6	1.5	12.1	78.8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8	2.3	3.8	87.2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16.7	4.4	18.2	60.7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1	5.0	28.6	51.3	100.0(119)
	사무 종사자	16.1	2.8	18.1	62.9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4.4	4.0	12.4	69.2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0.8	4.2	4.2	70.8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6	5.2	17.2	50.0	100.0(58)
	자영업	18.2	7.8	22.1	51.9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다른 연령대의 흡연행위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2014)에서 연령대별 흡연자수 및 현재 흡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표 2-2〉 참조). 국민건강통계의 흡연율과 본 연구의 흡연행위는 산출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특정 인구집단 흡연행위의 분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을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7.9%인 반면, 국민건강통계에서 발표된 2013년 50

대의 흡연율은 22.0%로 4.1%p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흡연율의 감소 추세, 표본의 차이, 담배가격의 인상 등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흡연율을 보면 30대까지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30대의 흡연율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고 2010년과 2013년은 40대, 20대 이하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11년과 2012년은 20대 이하,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의 흡연율은 모든 연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령대별 흡연자수 및 현재 흡연율 추이 : 만 19세 이상, 2010~2013

(단위 : %, 명)

연령	2010		2011		2012		2013	
	흡연자수	흡연율	흡연자수	흡연율	흡연자수	흡연율	흡연자수	흡연율
소계	6,256	26.9	6,023	26.3	5,591	25.0	5,338	23.2
19-29세	771	27.8	676	28.3	637	28.0	701	24.1
30-39세	1,254	35.0	1,097	36.6	960	32.5	938	30.7
40-49세	1,162	30.5	1,056	25.7	958	27.7	1,040	26.9
50-59세	1,174	25.1	1,184	24.5	1,067	24.6	1,013	22.0
60-69세	1,026	16.1	1,023	17.5	1,004	13.4	847	17.4
70세 이상	869	12.6	987	14.3	965	10.9	799	8.0

주 : 1)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2) 2013 국민건강통계 표본가구는 전국 3,182가구, 참여자수는 8,018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통계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지역 및 계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 둘째, 연령별 흡연율은 30대까지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조사).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50대 전반부가 50대 후반부 보다 '매일 피운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이유에 대한 조사문항은 없지만, 금연운동, 담배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음주

술자리를 1주일에 몇 번 갖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0회 51.3%, 1~2회 34.7%로 나타나, 1주일에 1회 이상의 음주는 하는 경우가 전체의 86.0%로 조사되었다(〈표 2-3〉 참조).

음주 습관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 남성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가 72.2%인 반면, 여성은 2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전반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전반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가 53.1%이고 50대 후반은 45.7%이다. 그리고 광역시 거주자가 서울이나 도지역(중소도시 및 군지역) 거주자 보다 1주일 6회 이상 음주하는 고 위험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1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6회 이상 술을 마시는 고 위험군은 중졸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주 6회 음주비율은 미혼이 10.0%로 가장 높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5.2%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1주일 6회 이상 음주율이 7.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1인가구의 경우도 1주일 6회 이상 음주율이 8.0%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술자리를 대부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6회 이상 고위험 음주습관 비율은 저소득층 5.2%, 중간층 1.3%, 상위층 0.0%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유무의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술을 마시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의 주 6회 이상 음주비율이 12.5%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6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표 2-3〉 50대의 특성별 음주습관

(단위 : %, 명)

구분		0회	1~2회	3~4회	4~5회	6회 이상	계
전체		51.3(513)	34.7(347)	9.8(98)	2.0(20)	2.2(22)	100.0(1000)
성별	남	27.8	47.3	17.5	3.6	3.8	100.0(497)
	여	74.6	22.3	2.2	0.4	0.6	100.0(503)
연령	50~54세	46.9	37.8	9.6	2.7	3.0	100.0(405)
	55~59세	54.3	32.6	9.9	1.5	1.7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49.0	36.5	11.1	1.9	1.4	100.0(208)
	광역시	54.2	33.7	7.3	1.8	2.9	100.0(273)
	도	50.7	34.5	10.6	2.1	2.1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58.6	27.9	7.2	0.9	5.4	100.0(111)
	고졸	54.3	29.2	12.2	1.9	2.4	100.0(411)
	대졸 이상	47.1	41.4	8.0	2.3	1.1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60.0	30.0	0.0	0.0	10.0	100.0(20)
	유배우(동거)	50.7	35.1	10.4	2.0	1.8	100.0(922)
	이혼·별거·사별	58.6	29.3	3.4	3.4	5.2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69.2	15.4	0.0	7.7	7.7	100.0(13)
	1명	50.6	34.6	10.5	1.2	3.1	100.0(162)
	2명	51.3	34.4	10.1	2.6	1.5	100.0(651)
	3명	47.8	40.4	8.8	0.0	2.9	100.0(136)
	4명 이상	61.1	22.2	16.7	0.0	0.0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56.0	30.0	2.0	4.0	8.0	100.0(50)
	부부가구	53.6	30.4	10.7	2.4	2.8	100.0(289)
	자녀동거가구	49.1	37.3	10.3	1.7	1.6	100.0(640)
	기타가구	76.2	23.8	0.0	0.0	0.0	100.0(21)

주 :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표 2-3〉 계속

구분		0회	1~2회	3~4회	4~5회	6회 이상	계
전체		51.3(513)	34.7(347)	9.8(98)	2.0(20)	2.2(22)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58.5	24.4	10.4	1.5	5.2	100.0(135)
	중하층	50.0	30.9	12.4	3.1	3.6	100.0(194)
	중간층	50.9	38.4	8.4	1.0	1.3	100.0(521)
	중상층	48.9	36.5	10.2	3.6	0.7	100.0(137)
	상위층	38.5	30.8	15.4	15.4	0.0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9.0	19.0	7.1	2.4	2.4	100.0(42)
	100~199만원	46.9	29.6	13.6	1.2	8.6	100.0(81)
	200~299만원	54.6	31.6	8.6	2.0	3.3	100.0(152)
	300~399만원	51.1	38.6	8.2	1.1	1.1	100.0(184)
	400~499만원	53.6	38.6	5.4	1.2	1.2	100.0(166)
	500~699만원	43.8	36.1	14.9	3.4	1.9	100.0(208)
	700~999만원	59.4	31.7	7.9	1.0	0.0	100.0(101)
	1000만원 이상	43.9	37.9	12.1	4.5	1.5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6.4	26.4	5.3	0.4	1.5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5.9	37.7	11.4	2.6	2.4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0.3	41.2	16.8	1.7	0.0	100.0(119)
	사무 종사자	47.2	39.1	8.9	2.0	2.8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52.7	32.3	10.4	2.0	2.5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50.0	20.8	12.5	4.2	12.5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9	48.3	8.6	3.4	1.7	100.0(58)
	자영업	40.3	36.4	15.6	6.5	1.3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2014)에서 발표한 월간 음주율 추이를 통해 연령대별 음주행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술자리를 갖는 응답자는 48.7%이고, 국민건강통계에서 발표된 2013년 50대의 월간 음주율은 5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간음주율과 월간음주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월간음주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 월간 음주율은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높고 30대가 그 다음 순이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다. 그리고 50대의 음주율은 모든 연도에서 네번째로 높다(〈표 2-4〉 참조).

〈표 2-4〉 연령대별 월간음주율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단위 : %, 명)

연령	2010		2011		2012		2013	
	n	음주율	n	음주율	n	음주율	n	음주율
소계	6,198	59.3	6,008	59.2	5,591	56.6	5,345	58.3
19-29세	759	67.3	676	73.0	637	66.6	701	72.4
30-39세	1,238	67.5	1,093	67.5	960	63.9	938	67.4
40-49세	1,153	65.5	1,046	59.5	958	59.4	1,040	60.7
50-59세	1,163	57.3	1,180	57.8	1,067	55.3	1,016	56.7
60-69세	1,021	43.9	1,026	46.6	1,004	42.6	851	42.4
70세 이상	864	29.2	987	28.7	965	32.8	801	28.0

주 : 1)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2) 2013 국민건강통계 표본가구수는 전국 3,182가구, 참여자수는 8,018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통계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고 위험 음주습관을 지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6회 이상 고위험 음주습관 비율은 저소득층 5.2%, 중간층 1.3%, 상위층 0.0%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 6회 이상 고위험 음주비율이 높은 유형으로는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12.5%), 미혼(10.0%), 이혼·별거·사별(5.2%), 자녀가 없는 50대(7.7%), 1인가구(8.0%), 중졸 이하(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에 대한 특화된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1년 이후 연령대별 월간 음주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넷째, 우리나라의 월간음주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3. 규칙적 운동

본 연구의 조사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50대의 비율이 22.5%로 조사되었다(〈표 2-5〉 참조). 성별로는 남성(20.7%)보다는 여성(24.3%)들이, 연령별로는 50대 후반(19.0%)보다는 50대 전반(27.7%)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 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거의 매일 한다는 증률 이하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4회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응답자는 대졸 이상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과 이혼·별거·사별의 경우가 유배우인 경우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칙적 운동의 실천수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1인가구의 36.0%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부가구의 31.5%는 1주일에 1~2회, 자녀동거가구의 38.0%는 1주일에 3~4회, 부모와 자녀 가구의 33.3%는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대는 운동을 안한다는 응답이 각각 33.3%인 반면 200만원대는 23.7%, 400만원대는 21.1%, 700만원대는 8.9%의 응답자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반면, 거의 매일 운동을 한다는 100만원대가 28.4%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근로유무별로 비교해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은 농·임·어업과 숙련노동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그룹에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표 2-5〉 50대의 특별성 운동습관

(단위 : %, 명)

구분		안한다	1주일에 1~2회 정도 한다	1주일에 3~4회 정도 한다	거의 매일 한다	계
전체		22.5(225)	35.0(350)	23.5(235)	19.0(190)	100.0(1000)
성별	남	20.7	36.8	21.9	20.5	100.0(497)
	여	24.3	33.2	25.0	17.5	100.0(503)
연령	50~54세	27.7	37.5	18.3	16.5	100.0(405)
	55~59세	19.0	33.3	27.1	20.7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20.2	36.1	25.0	18.8	100.0(208)
	광역시	24.5	32.6	20.5	22.3	100.0(273)
	도	22.4	35.8	24.5	17.3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27.0	26.1	23.4	23.4	100.0(111)
	고졸	22.4	33.1	24.1	20.4	100.0(411)
	대졸 이상	21.1	39.1	23.3	16.5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35.0	30.0	10.0	25.0	100.0(20)
	유배우(동거)	21.4	35.6	24.4	18.7	100.0(922)
	이혼·별거·사별	36.2	27.6	13.8	22.4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38.5	38.5	0.0	23.1	100.0(13)
	1명	24.7	37.0	22.2	16.0	100.0(162)
	2명	20.3	34.4	25.5	19.8	100.0(651)
	3명	26.5	35.3	19.9	18.4	100.0(136)
	4명 이상	27.8	38.9	22.2	11.1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36.0	24.0	20.0	20.0	100.0(50)
	부부가구	22.1	31.5	23.9	22.5	100.0(289)
	자녀동거가구	21.4	38.0	23.8	16.9	100.0(640)
	기타가구	28.6	19.0	19.0	33.3	100.0(21)

〈표 2-5〉 계속

구분		안한다	1주일에 1~2회 정도 한다	1주일에 3~4회 정도 한다	거의 매일 한다	계
전체		22.5(225)	35.0(350)	23.5(235)	19.0(190)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33.3	30.4	13.3	23.0	100.0(135)
	중하층	28.4	35.1	22.2	14.4	100.0(194)
	중간층	18.8	36.3	26.1	18.8	100.0(521)
	중상층	16.1	34.3	27.0	22.6	100.0(137)
	상위층	38.5	38.5	7.7	15.4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3.3	28.6	14.3	23.8	100.0(42)
	100~199만원	33.3	28.4	9.9	28.4	100.0(81)
	200~299만원	23.7	36.2	22.4	17.8	100.0(152)
	300~399만원	25.5	27.7	28.8	17.9	100.0(184)
	400~499만원	21.1	37.3	24.7	16.9	100.0(166)
	500~699만원	20.7	38.9	21.6	18.8	100.0(208)
	700~999만원	8.9	38.6	33.7	18.8	100.0(101)
	1000만원 이상	21.2	40.9	21.2	16.7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0.8	30.9	28.7	19.6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23.1	36.5	21.6	18.8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6	36.1	24.4	21.8	100.0(119)
	사무 종사자	22.6	36.3	24.2	16.9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3.4	40.3	14.9	21.4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33.3	33.3	16.7	16.7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8	29.3	19.0	19.0	100.0(58)
	자영업	20.8	35.1	32.5	11.7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2014)에서 발표한 걷기 실천율 추이를 통해 연령대별 규칙적 운동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걷기 실천율은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2-6〉 참조). 그러나 40대는 2010년에 비해 2011년 걷기 실천율이 감소했으나 이후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걷기 실천율을 보면 모든 연도에서 20대 이하는 50% 정도가 실천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와 40대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

다가 50대 이후부터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0대의 걷기 실천율은 해마다 그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0년 40.1%에서 2011년 36.7%, 2012년 34.7%, 2013년에는 31.5%이다.

〈표 2-6〉 연령대별 걷기실천율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단위 : %, 명)

연령	2010		2011		2012		2013	
	사례수	분율	사례수	분율	사례수	분율	사례수	분율
소계	6,247	40.9	6,013	37.6	5,577	38.7	5,333	37.4
19-29세	771	50.9	677	49.8	636	50.6	700	49.0
30-39세	1,251	38.3	1,095	34.9	959	39.0	938	35.7
40-49세	1,162	34.5	1,054	31.9	958	34.5	1,040	36.0
50-59세	1,172	40.1	1,181	36.7	1,066	34.7	1,013	31.5
60-69세	1,024	44.5	1,022	36.6	1,003	37.7	847	34.7
70세 이상	867	37.8	984	34.3	955	32.1	795	35.1

주 : 1) 걷기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2) 2013 국민건강통계 표본가구수는 전국 3,182가구, 참여자수는 8,018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통계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저소득층(33.3%), 중하층(28.4%), 중간층(18.8%), 중상층(16.1%), 상위층(16.1%)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군이다. 셋째, 50대의 걷기 실천율은 해마다 그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0년 40.1%에서 2011년 36.7%, 2012년 34.7%, 2013년에는 31.5%로 조사되었다.

4. 주관적 건강수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50대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1.3%,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18.7%이다(〈표 2-7〉 참조).

응답자의 특성별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77.3%)보다 남성(85.3%)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은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거주지역으로는 도지역이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83.9%, 고졸의 80.3%, 중졸 이하의 73.9%가 건강하다고 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동거)의 82.6%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혼 75.0%, 이혼·별거·사별 62.1%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수의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자녀없음이 46.2%, 1명이 80.2%, 2명이 82.6%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높았지만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다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의 83.7%가 건강하다고 답하여 가장 높고 1인 가구는 66.0%로 가장 낮다.

〈표 2-7〉 50대 특성별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 명)

구분		매우 건강이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계
전체		2.1(21)	16.6(166)	69.9(699)	11.4(114)	81.3(813)	18.7(187)	100.0(1000)
성별	남	1.0	13.7	71.4	13.9	85.3	14.7	100.0(497)
	여	3.2	19.5	68.4	8.9	77.3	22.7	100.0(503)
연령	50~54세	3.0	14.3	69.9	12.8	82.7	17.3	100.0(405)
	55~59세	1.5	18.2	69.9	10.4	80.3	19.7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1.4	17.3	73.6	7.7	81.3	18.8	100.0(208)
	광역시	1.5	18.7	66.3	13.6	79.9	20.1	100.0(273)
	도	2.7	15.2	70.3	11.8	82.1	17.9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2.7	23.4	66.7	7.2	73.9	26.1	100.0(111)
	고졸	2.9	16.8	68.6	11.7	80.3	19.7	100.0(411)
	대졸 이상	1.1	15.0	72.1	11.8	83.9	16.1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10.0	15.0	50.0	25.0	75.0	25.0	100.0(20)
	유배우(동거)	1.8	15.5	71.3	11.4	82.6	17.4	100.0(922)
	이혼·별거·사별	3.4	34.5	55.2	6.9	62.1	37.9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0.0	53.8	38.5	7.7	46.2	53.8	100.0(13)
	1명	2.5	17.3	69.8	10.5	80.2	19.8	100.0(162)
	2명	1.1	16.3	71.1	11.5	82.6	17.4	100.0(651)
	3명	4.4	14.7	69.9	11.0	80.9	19.1	100.0(136)
	4명 이상	11.1	11.1	72.2	5.6	77.8	22.2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8.0	26.0	52.0	14.0	66.0	34.0	100.0(50)
	부부가구	1.7	14.5	72.3	11.4	83.7	16.3	100.0(289)
	자녀동거가구	1.9	16.4	70.8	10.9	81.7	18.3	100.0(640)
	기타가구	0.0	28.6	52.4	19.0	71.4	28.6	100.0(21)

소득계층은 저소득층(68.1%)에서 중상층(87.6%)으로 갈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증가하지만 상위층(69.2%)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또한 100만원 미만의 54.8%가 건강하다고 답한 반면, 200만원대는 84.2%, 400만원대는 81.9%, 1000만원 이상은 89.4%가 건강하다고 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유무에 따라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75.5%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83.4%가 건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88.3%가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87.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9%, 사무 종사자 8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계속

구분		매우 건강이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계
전체		2.1(21)	16.6(166)	69.9(699)	11.4(114)	81.3(813)	18.7(187)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4.4	27.4	55.6	12.6	68.1	31.9	100.0(135)
	중하층	2.6	16.0	72.2	9.3	81.4	18.6	100.0(194)
	중간층	1.2	15.5	74.1	9.2	83.3	16.7	100.0(521)
	중상층	2.9	9.5	65.7	21.9	87.6	12.4	100.0(137)
	상위층	0.0	30.8	61.5	7.7	69.2	30.8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6.7	28.6	45.2	9.5	54.8	45.2	100.0(42)
	100~199만원	0.0	21.0	67.9	11.1	79.0	21.0	100.0(81)
	200~299만원	0.7	15.1	75.7	8.6	84.2	15.8	100.0(152)
	300~399만원	2.7	17.9	69.6	9.8	79.3	20.7	100.0(184)
	400~499만원	1.2	16.9	73.5	8.4	81.9	18.1	100.0(166)
	500~699만원	2.4	14.4	69.7	13.5	83.2	16.8	100.0(208)
	700~999만원	1.0	15.8	69.3	13.9	83.2	16.8	100.0(101)
1000만원 이상	0.0	10.6	68.2	21.2	89.4	10.6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4	21.1	67.2	8.3	75.5	24.5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1.6	15.0	70.9	12.5	83.4	16.6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	13.4	68.1	16.8	84.9	15.1	100.0(119)
	사무 종사자	1.2	14.5	72.6	11.7	84.3	15.7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0	18.9	70.1	9.0	79.1	20.9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0.0	12.5	62.5	25.0	87.5	12.5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	17.2	72.4	10.3	82.8	17.2	100.0(58)
	자영업	2.6	9.1	76.6	11.7	88.3	11.7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국민건강통계(2014)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의 조사에서 건강수준이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표 2-8〉 참조) 먼저 본 연구에서 현재 건강수준이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3%, 국민건강통계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50대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6.4%로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화조사의 한계, 표본수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3.5%로 50대는 이보

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연도에서 50대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2011년 이후 50대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8〉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 만19세 이상, 2010~2013

(단위 : %, 명)

연령	2010		2011		2012		2013	
	n	분율	n	분율	n	분율	n	분율
소계	6,254	36.0	6,027	35.3	5,611	32.0	5,362	33.5
19~29세	767	43.4	676	44.9	637	46.1	702	47.6
30~39세	1,253	39.8	1,094	34.6	959	31.4	938	38.8
40~49세	1,162	34.4	1,052	37.1	957	34.7	1,042	34.9
50~59세	1,171	31.5	1,185	32.9	1,071	26.8	1,016	26.4
60~69세	1,028	32.1	1,029	27.3	1,009	23.2	856	22.3
70세 이상	873	27.9	991	27.1	978	18.8	808	18.9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 2013 국민건강통계 표본가구수는 전국 3,182가구, 참여자수는 8,018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통계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 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일을 하지 않는 50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이다. 셋째, 50대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2절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1. 문화활동

2015년 현재 우리나라 50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영화, 미술, 음악회 등 문화활동을 하는 빈도를 조사에서, 아주 가끔 한다가 38.6%로 가장 높고 사실상 하지 않는다 30.8%,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편이다 25.6% 순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성별에 따라서는 사실상 하지 않는다가 남성은 35.8%, 여성은 25.8%, 한달에 한 두 번 하는 편이라는 남성이 24.3%, 여성이 26.8%,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한다는 남성이 1.0%, 여성이 2.4%로 남성보다 여성이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50대 전반부에서 문화활동을 약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주지역을 보면 사실상 하지 않는다가 광역시 34.4%, 도 32.6%인데 비해 서울은 21.6%가 응답하여 광역시 및 도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사실상 하지 않는다'가 중졸 이하는 55.9%인 반면 고졸은 34.1%, 대졸 이상 21.8%이며, '한달에 한 두 번 하는 편이다'는 중졸 이하가 9.0%, 고졸이 21.9%, 대졸 이상이 32.8%로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가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보다 문화활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녀수에 따라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는 2명 32.3%, 1명 29.1%, 3명 27.9%, 4명 이상 27.8% 순이고 자녀없음은 7.7%에 불과하였다.

〈표 2-9〉 50대의 특성별 문화활동

(단위 : %, 명)

구분		사실상 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한다	한달에 한두번 하는 편이다	주말마다 가는 편이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한다	계
전체		30.8(308)	38.6(386)	25.6(256)	3.3(33)	1.7(17)	100.0(1000)
성별	남	35.8	35.4	24.3	3.4	1.0	100.0(497)
	여	25.8	41.7	26.8	3.2	2.4	100.0(503)
연령	50~54세	27.9	39.0	27.9	3.7	1.5	100.0(405)
	55~59세	32.8	38.3	24.0	3.0	1.8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21.6	42.3	30.3	3.8	1.9	100.0(208)
	광역시	34.4	35.5	24.5	2.6	2.9	100.0(273)
	도	32.6	38.7	24.3	3.5	1.0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55.9	31.5	9.0	2.7	0.9	100.0(111)
	고졸	34.1	40.6	21.9	2.4	1.0	100.0(411)
	대졸 이상	21.8	38.7	32.8	4.2	2.5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50.0	25.0	20.0	0.0	5.0	100.0(20)
	유배우(동거)	29.7	39.4	25.9	3.4	1.6	100.0(922)
	이혼·별거·사별	41.4	31.0	22.4	3.4	1.7	100.0(58)
자녀 수	자녀없음	46.2	46.2	7.7	0.0	0.0	100.0(13)
	1명	25.9	45.1	21.6	5.6	1.9	100.0(162)
	2명	28.4	39.3	28.1	2.5	1.7	100.0(651)
	3명	42.6	29.4	21.3	5.1	1.5	100.0(136)
	4명 이상	38.9	33.3	22.2	5.6	0.0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46.0	32.0	18.0	2.0	2.0	100.0(50)
	부부가구	30.8	42.6	20.4	4.5	1.7	100.0(289)
	자녀동거가구	29.7	37.7	28.3	2.8	1.6	100.0(640)
	기타가구	28.6	28.6	33.3	4.8	4.8	100.0(21)

주관적 소득계층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계층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유무에 따른 문화활동은 일을 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4%,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5.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7.8%, 자영업 32.5%, 사무 종사자 28.2%,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0% 순으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계속

구분		사실상 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한다	한달에 한두번 하는 편이다	주말마다 가는 편이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한다	계
전체		30.8(308)	38.6(386)	25.6(256)	3.3(33)	1.7(17)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54.1	33.3	10.4	2.2	0.0	100.0(135)
	중하층	36.6	34.0	24.2	3.1	2.1	100.0(194)
	중간층	26.5	41.5	27.1	3.1	1.9	100.0(521)
	중상층	17.5	38.0	38.0	5.1	1.5	100.0(137)
	상위층	15.4	53.8	15.4	7.7	7.7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1	28.6	14.3	0.0	0.0	100.0(42)
	100~199만원	50.6	29.6	16.0	3.7	0.0	100.0(81)
	200~299만원	35.5	38.8	22.4	2.0	1.3	100.0(152)
	300~399만원	32.6	43.5	19.6	1.6	2.7	100.0(184)
	400~499만원	33.7	37.3	24.7	3.6	0.6	100.0(166)
	500~699만원	21.2	42.3	30.3	3.8	2.4	100.0(208)
	700~999만원	14.9	37.6	41.6	4.0	2.0	100.0(101)
1000만원 이상	21.2	34.8	31.8	9.1	3.0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4.5	40.8	27.5	4.5	2.6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33.1	37.8	24.9	2.9	1.4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0	39.5	31.9	4.2	3.4	100.0(119)
	사무 종사자	28.2	39.1	29.0	3.2	0.4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7.8	37.8	20.9	2.0	1.5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5.8	25.0	20.8	8.3	0.0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4	29.3	15.5	1.7	0.0	100.0(58)
	자영업	32.5	42.9	20.8	1.3	2.6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생활 현황을 연령별로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매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 현황을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표 2-10〉 참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국민들 중 2011년에 한 번이라도 공연, 전시 및 스포츠 등을 관람한 사람의 비율은 44.8%이고 2013년은 50.7%로 2년 동안 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는 50대는 30.8%, 아주 가끔 한다부터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한다까지는 69.3%로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결과와는 약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식의 차이, 설문지 내용의 차이, 표본의 차이 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은 2011년 58.6%, 2013년 63.4%로 2011년에 비해 2013년에는 4.8%p 증가하였으며 50대는 모든 연도에서 5번째로 높다. 문화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10대와 20대이며 30대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표 2-10〉 연령대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추이 : 복수응답, 만13세 이상, 2011년 및 2013년
(단위 : %, 명)

	관람함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2011년(계)	58.6	25.2	25.0	2.6	81.8	26.4	20.7	24.3
13-19세	81.9	23.7	21.9	3.1	87.9	25.8	20.6	20.5
20-29세	81.8	24.9	31.3	2.8	89.8	19.3	21.1	27.2
30-39세	74.3	20.8	25.9	2.2	83.0	31.4	21.1	26.2
40-49세	62.6	26.7	21.7	2.7	81.6	28.4	20.2	24.3
50-59세	44.8	31.3	24.1	2.7	71.6	24.8	20.3	23.7
60세 이상	18.2	29.2	21.6	2.5	54.6	29.2	20.6	17.9
2013년(계)	63.4	21.7	24.2	2.4	85.9	25.8	19.4	22.0
13-19세	86.1	22.0	24.7	3.5	88.4	25.8	18.2	20.7
20-29세	86.4	22.2	30.9	2.6	91.8	21.1	21.4	27.1
30-39세	79.9	18.2	26.4	2.3	88.4	28.8	21.1	22.9
40-49세	70.5	21.1	19.9	2.2	88.0	27.6	18.8	22.0
50-59세	50.7	23.7	18.8	1.5	80.0	23.1	17.6	17.8
60세 이상	23.0	27.9	20.8	2.4	60.6	29.4	16.4	15.7

주 :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지난 1년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분율.
 2) 2011년 사회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하며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약 17,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013년 사회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추출방법과 가구수는 2011년과 동일함.
 자료 : 2011년 :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2013년 :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보고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사회조사보고서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문화활동 향유 정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문화활동이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미혼,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2. 사회활동

50대의 사회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3개가 22.0%로 가장 많았고 2개 20.1%, 6개 이상 15.7%, 5개 14.9% 순이며 0개는 5.6%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성별에 따르면 0개에서 4개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5개와 6개 이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거주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6개 이상 참여에서는 중졸 이하가 10.8%, 고졸이 13.6%, 대졸 이상이 18.6%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르면 유배우(동거)는 0개가 4.0%로 가장 낮고, 6개 이상은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미혼이 30.0%, 이혼·별거·사별은 22.4%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에 따라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자녀없음 15.4%, 3명 7.4%, 4명 이상 5.6%, 2명 4.6%, 1명 4.3% 순으로 나타나, 자녀없음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중이 가장 높고, 1명과 2명은 1개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28.0%가 0개, 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는 각각 4.5%, 부모와 자녀는 0.0%로 1인가구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중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은 0개가 31.0%로 가장 높고 100~600만원대는 1~3개에 집중되었으나 700만원대 이상은 4개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비중이 높다. 근로유무별로는 일을 하는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다수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삼식 외(2013)의 결과를 살펴보면, 50대는 30대에나 40대에 비하여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많지만 60대에 비하여 높다. 즉 30대는 평균 2.1개, 40대는 3.4개인데 비하여 50대는 6.5개로 매우 높지만 60대는 4.1개로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12〉 참조). 즉 50대가 참여하는 모임수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고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2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표 2-11〉 50대의 특성별 참여 모임 수

(단위 : %, 명)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계
전체		5.6(56)	7.6(76)	20.1(201)	22.0(220)	14.1(141)	14.9(149)	15.7(157)	100.0(1000)
성별	남	5.0	5.6	17.1	21.1	13.9	18.3	18.9	100.0(497)
	여	6.2	9.5	23.1	22.9	14.3	11.5	12.5	100.0(503)
연령	50~54세	6.2	9.9	18.5	22.7	15.1	14.3	13.3	100.0(405)
	55~59세	5.2	6.1	21.2	21.5	13.4	15.3	17.3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3.8	6.3	21.6	23.6	16.3	14.9	13.5	100.0(208)
	광역시	9.2	7.7	22.0	18.7	13.9	11.4	17.2	100.0(273)
	도	4.4	8.1	18.5	23.1	13.3	16.8	15.8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12.6	6.3	26.1	21.6	10.8	11.7	10.8	100.0(111)
	고졸	5.6	9.0	20.9	25.1	12.4	13.4	13.6	100.0(411)
	대졸 이상	3.8	6.8	18.0	19.2	16.5	17.1	18.6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30.0	5.0	20.0	15.0	10.0	10.0	10.0	100.0(20)
	유배우(동거)	4.0	7.3	20.4	21.9	14.2	15.6	16.6	100.0(922)
	이혼·별거·사별	22.4	13.8	15.5	25.9	13.8	5.2	3.4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15.4	23.1	0.0	23.1	15.4	7.7	15.4	100.0(13)
	1명	4.3	11.1	22.2	22.8	15.4	13.6	10.5	100.0(162)
	2명	4.6	5.7	19.8	22.4	14.4	15.4	17.7	100.0(651)
	3명	7.4	12.5	19.9	20.6	9.6	16.9	13.2	100.0(136)
	4명 이상	5.6	0.0	27.8	16.7	27.8	5.6	16.7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28.0	8.0	14.0	24.0	10.0	10.0	6.0	100.0(50)
	부부가구	4.5	7.3	19.4	22.1	14.2	15.2	17.3	100.0(289)
	자녀동거가구	4.5	7.7	20.9	21.4	14.8	15.2	15.5	100.0(640)
	부모와 자녀	0.0	9.5	19.0	33.3	0.0	14.3	23.8	100.0(21)

〈표 2-11〉 계속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계
전체		5.6(56)	7.6(76)	20.1(201)	22.0(220)	14.1(141)	14.9(149)	15.7(157)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17.8	10.4	28.1	20.7	8.9	10.4	3.7	100.0(135)
	중하층	7.2	9.3	21.6	22.7	13.9	13.9	11.3	100.0(194)
	중간층	2.9	7.5	18.8	22.8	14.4	15.4	18.2	100.0(521)
	중상층	1.5	3.6	13.9	21.2	18.2	19.0	22.6	100.0(137)
	상위층	7.7	0.0	30.8	0.0	15.4	15.4	30.8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1.0	7.1	21.4	19.0	4.8	4.8	11.9	100.0(42)
	100~199만원	13.6	11.1	22.2	18.5	7.4	14.8	12.3	100.0(81)
	200~299만원	3.9	13.2	27.6	23.7	9.9	11.8	9.9	100.0(152)
	300~399만원	3.8	7.1	24.5	22.8	15.8	12.5	13.6	100.0(184)
	400~499만원	4.8	7.2	18.1	27.7	14.5	14.5	13.3	100.0(166)
	500~699만원	2.9	6.7	15.4	22.6	15.4	15.4	21.6	100.0(208)
	700~999만원	2.0	3.0	16.8	15.8	22.8	18.8	20.8	100.0(101)
1000만원 이상	4.5	3.0	12.1	15.2	15.2	28.8	21.2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4	9.8	26.8	22.6	12.8	10.9	10.6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5.3	6.8	17.7	21.8	14.6	16.3	17.6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	1.7	14.3	27.7	18.5	16.0	18.5	100.0(119)
	사무 종사자	3.2	6.0	14.1	20.2	19.0	16.5	21.0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8.5	9.5	23.4	23.4	9.0	14.4	11.9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2	4.2	12.5	25.0	12.5	25.0	16.7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3	15.5	22.4	15.5	13.8	8.6	13.8	100.0(58)
	자영업	2.6	5.2	16.9	16.9	10.4	24.7	23.4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표 2-12〉 연령군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수

연령군	0~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30대	16.0	21.0	37.0	13.5	10.5	2.1
40대	13.1	19.7	28.5	21.4	14.0	3.4
50대	11.5	18.9	25.6	19.9	17.6	6.5
60대	21.0	24.7	24.3	15.4	10.5	4.1

자료 : 이삼식 외(2013).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사회조사보고서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활동 정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활동이 낮은 집단은 여성,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미혼,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셋째, 10세 단위로 나눈 연령별에서는 50대는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제3장

가족관계 및 노후생활

제1절 가족관계

제2절 주요관심사

제3절 노후생활

3

가족관계 및 노후생활 <<

제1절 가족관계

삶에 있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과 비공식적 관계는 삶의 질과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Cantor, 1979; Ward, 1985). 가까운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0대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과의 대화의 충분성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현재와 미래에 도움을 교환할 수 있는 존재인 가족과의 친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50대의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표 3-1>에 의하면, 대화를 하는 편이다가 44.1%,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가 32.4%이다. 즉 4명중 3명은 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가 7.7%이며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가 13.6%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는 2.2%이다.

본 조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질문하였다. 유사한 조사결과인 이삼식 외(2013)에 의하면 50대는 배우자(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와의 대화의 충분성은 30~40대에 비하여 낮지만 자녀의 경우는 30~40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자녀의 대화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이 높아 여자가 81.9%이며 남자는 71.1%이다. 또한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남자가 10.5%로 여자의 5.0%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매우 큰 차이점이다. 연령군 별로는 50대 전반부가 50대 후반부에 비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조금 높아 3.7%이다. 또한 50대 후반부는 대화를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6.0%로 50대 전반부의 10.1%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의 충분성에 있어서의 학력별 차이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혼인상태나 자녀수, 가구형태별 차이는 큰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대부분의 50대가 유배우인데 이들의 79.0%가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을 하고 있다. 자녀수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에 있어서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인 경우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이 80.2%로 부부가구의 77.5%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며, 기타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61.9%이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다. 즉 주관적인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이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65.9%인 반면 중상층은 78.7%, 상위층은 86.1%이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한 경향이 있다. 또한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50대에 게서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고, 특히 100만원 미만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10%를 넘고 있음도 관심을 요하는 결과이다.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이 74.8%로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81.1%에 비하여 낮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직종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이 70%대로 자영업의 76.6%와 유사한 수준이며, 1차산업종사자의 91.6%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경우는 동 비율이 62.0%로 화이트 칼라 직종 종사자보다 낮다. 즉 시간적 유연성이 있는 직종인 1차산업종사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화 충분성을 갖고 있으며, 다음이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순서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의 대화의 충분성능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가족과의 대화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이 적거나 가족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50대의 특성별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대화의 충분성

(단위 : %, 명)

구분		배우자와 자녀 없음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	계
전체		2.2 (22)	7.7 (77)	13.6 (136)	44.1 (441)	32.4 (324)	100.0(1000)
성별	남	2.6	10.5	15.9	42.9	28.2	100.0(497)
	여	1.8	5.0	11.3	45.3	36.6	100.0(503)
연령	50~54세	3.7	8.4	10.1	42.5	35.3	100.0(405)
	55~59세	1.2	7.2	16.0	45.2	30.4	100.0(595)
거주지역	서울	2.4	4.8	15.9	50.5	26.4	100.0(208)
	광역시	1.8	8.4	12.8	46.5	30.4	100.0(273)
	도	2.3	8.5	13.1	40.3	35.8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0.9	8.1	18.0	44.1	28.8	100.0(111)
	고졸	2.4	9.0	13.6	43.8	31.1	100.0(411)
	대졸 이상	2.3	6.1	12.7	44.4	34.5	100.0(473)
	무응답	0.0	40.0	0.0	40.0	20.0	100.0(5)
혼인상태	미혼	80.0	5.0	5.0	5.0	5.0	100.0(20)
	유배우(동거)	0.0	7.4	13.7	45.6	33.4	100.0(922)
	이혼·별거·사별	10.3	13.8	15.5	34.5	25.9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23.1	23.1	23.1	23.1	7.7	100.0(13)
	1명	0.6	8.0	13.6	46.9	30.9	100.0(162)
	2명	0.3	7.5	13.8	44.5	33.8	100.0(651)
	3명	0.0	7.4	13.2	47.8	31.6	100.0(136)
	4명 이상	0.0	5.6	11.1	33.3	50.0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38.0	18.0	14.0	20.0	10.0	100.0(50)
	부부가구	0.0	10.4	12.1	42.6	34.9	100.0(289)
	자녀동거가구	0.0	5.3	14.5	46.9	33.3	100.0(640)
	기타가구	14.3	19.0	4.8	38.1	23.8	100.0(21)

〈표 3-1〉 계속

구분		배우자와 자녀 없음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대화를 하는 편이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5.2	9.6	19.3	44.4	21.5	100.0(135)
	중하층	2.6	10.8	16.0	43.3	27.3	100.0(194)
	중간층	1.7	6.3	13.2	45.1	33.6	100.0(521)
	중상층	0.7	6.6	6.6	41.6	44.5	100.0(137)
	상위층	0.0	7.7	7.7	38.5	46.2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9	14.3	19.0	40.5	14.3	100.0(42)
	100~199만원	3.7	12.3	14.8	48.1	21.0	100.0(81)
	200~299만원	3.3	7.9	14.5	47.4	27.0	100.0(152)
	300~399만원	2.2	9.2	14.1	47.8	26.6	100.0(184)
	400~499만원	1.2	6.0	15.7	40.4	36.7	100.0(166)
	500~699만원	1.0	5.3	13.9	45.2	34.6	100.0(208)
	700~999만원	1.0	6.9	7.9	42.6	41.6	100.0(101)
	1000만원 이상	0.0	6.1	7.6	31.8	54.5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1	6.0	11.7	50.2	30.9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2.6	8.3	14.3	41.9	32.9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8	6.7	14.3	44.5	33.6	100.0(119)
	사무 종사자	2.4	8.9	13.7	40.3	34.7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0	8.0	14.9	41.3	32.8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0.0	4.2	4.2	33.3	58.3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	10.3	25.9	37.9	24.1	100.0(58)
	자영업	5.2	9.1	9.1	54.5	22.1	100.0(77)
	모름/무응답	12.5	12.5	12.5	0.0	62.5	100.0(8)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제2절 주요 관심사

본 절에서는 현재의 걱정거리를 통해서는 현재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노후와 관련하여 걱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노후생활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표 3-2>에 의하면 ‘귀하의 가장 큰 걱정거리(불안요인)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50대의 9.1%만이 현재 걱정거리(불안요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자녀 교육 및 결혼(28.8%), 나(배우자)의 건강(26.4%)와 은퇴 후 생계(23.9%)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희 외(2010)에서 나타난 전후세대(현재의 60대 전반기)와 베이비 부머(현재 50대)의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이 향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차이가 있어, 남자의 경우는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이 28.2%로 여자의 19.7%에 비하여 8.5%포인트 높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상 남자에게 부양책임자의 역할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자의 경우는 자녀 교육 및 결혼(31.6%), 나(배우자)의 건강(31.2%)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50세 전반부의 경우는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이, 50세 후반부는 나(배우자)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50대 전반부는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연령대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50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노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는 나(배우자)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32.4%로 다른 학력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한편 자녀 교육 및 결혼이라는 응답은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 대졸 이상에게서는 34.0%, 고졸은 26.3%, 중졸 이하는 17.1%이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은 무배우자에게서 높아 미혼인 경우는 30.0%,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32.8%로 유배우자의 23.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유배우인 경우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 가장 높아 30.2%이며, 다음이 나(배우자의 건강)으로 27.0%이다.

자녀수별로 비교해보면 자녀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응답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자녀가 적을수록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성이 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응답율이 높아 35.3%에 달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은퇴 후 생계와 나(배우자)의

건강이라는 응답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나 중하층에게서는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35.6%와 34.5%이다. 반면 중간층은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응답이 높아 32.6%이다. 중상층은 나(배우자)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다. 한편 객관적인 월평균가구소득별로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 및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은퇴 후 생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 및 객관적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높다.

경제활동실태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은퇴 후 생계(25.6%와 19.2%),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나(배우자)의 건강이라는 응답이(23.7%와 34.0%) 높다.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일차산업종사자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29.2%로 월등히 높고, 기능원이나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경우는 은퇴 후 생계라는 응답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44.8%와 31.3%).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대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고민과 더불어 자신과 배우자의 노화진전에 따른 건강강화와 생계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둘째, 50대 전반부는 은퇴 후 생계를, 50대 후반부는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관심사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소득계층별로 주요 관심사가 상이하여 저소득층은 생계에 대한 관심이 중상층 이상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표 3-2〉 50대의 특성별 가장 큰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 명)

구분		자녀 교육 및 결혼	나 (배우자)의 건강	은퇴후 생계	없다	부채 상황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와 의 관계	기타	계
전체		28.8 (288)	26.4 (264)	23.9 (239)	9.1 (91)	5.1 (51)	2.4 (24)	2.2 (22)	2.1 (21)	100.0(1000)
성별	남	26.0	21.5	28.2	10.7	6.2	2.6	3.0	1.8	100.0(497)
	여	31.6	31.2	19.7	7.6	4.0	2.2	1.4	2.4	100.0(503)
연령	50~54세	29.6	22.0	26.4	8.9	6.4	2.5	2.7	1.5	100.0(405)
	55~59세	28.2	29.4	22.2	9.2	4.2	2.4	1.8	2.5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30.8	23.6	29.3	6.3	3.8	2.4	2.4	1.4	100.0(208)
	광역시	27.1	30.8	20.1	9.5	5.5	3.3	1.1	2.6	100.0(273)
	도	28.9	25.2	23.7	10.0	5.4	1.9	2.7	2.1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17.1	32.4	22.5	5.4	9.0	5.4	3.6	4.5	100.0(111)
	고졸	26.3	26.8	27.3	7.1	6.3	1.7	2.7	1.9	100.0(411)
	대졸 이상	34.0	24.7	20.9	11.6	3.2	2.3	1.5	1.7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0.0	15.0	30.0	15.0	5.0	20.0	0.0	15.0	100.0(20)
	유배우(동거)	30.2	27.0	23.2	9.0	5.0	1.5	2.4	1.7	100.0(922)
	이혼·별거·사별	17.2	20.7	32.8	8.6	6.9	10.3	0.0	3.4	100.0(58)
자녀 수	자녀없음	0.0	38.5	30.8	0.0	7.7	7.7	7.7	7.7	100.0(13)
	1명	23.5	24.1	29.6	12.3	4.3	3.1	1.9	1.2	100.0(162)
	2명	30.3	25.7	24.4	9.1	4.6	2.0	1.8	2.2	100.0(651)
	3명	36.0	31.6	14.0	5.9	8.1	0.7	2.9	0.7	100.0(136)
	4명 이상	22.2	38.9	16.7	5.6	5.6	0.0	11.1	0.0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6.0	24.0	28.0	18.0	6.0	14.0	0.0	4.0	100.0(50)
	부부가구	19.0	30.4	23.9	14.2	4.2	2.1	3.5	2.8	100.0(289)
	자녀동거가구	35.3	25.0	23.3	6.1	5.5	1.6	1.7	1.6	100.0(640)
	기타가구	19.0	19.0	33.3	9.5	4.8	4.8	4.8	4.8	100.0(21)

〈표 3-2〉 계속

구분		자녀 교육 및 결혼	나 (배우자) 의 건강	은퇴후 생계	없다	부채 상황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와 의 관계	기타	계
소득 계층	저소득층	19.3	19.3	35.6	7.4	11.9	3.0	1.5	2.2	100.0(135)
	중하층	25.8	21.6	34.5	3.1	6.7	3.6	2.6	2.1	100.0(194)
	중간층	32.6	27.4	20.3	10.0	3.8	1.5	2.1	2.1	100.0(521)
	중상층	30.7	35.8	13.1	13.9	1.5	2.2	0.7	2.2	100.0(137)
	상위층	0.0	30.8	0.0	30.8	0.0	15.4	23.1	0.0	100.0(13)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9	26.2	31.0	9.5	11.9	7.1	2.4	0.0	100.0(42)
	100~199만원	16.0	21.0	34.6	7.4	7.4	4.9	3.7	4.9	100.0(81)
	200~299만원	20.4	30.9	27.0	6.6	6.6	3.3	3.3	2.0	100.0(152)
	300~399만원	26.1	25.0	33.2	6.0	4.9	1.1	1.6	2.2	100.0(184)
	400~499만원	35.5	29.5	20.5	6.6	4.8	0.6	1.8	0.6	100.0(166)
	500~699만원	34.1	24.5	18.3	11.5	4.3	2.4	1.0	3.8	100.0(208)
	700~999만원	41.6	22.8	16.8	13.9	3.0	1.0	0.0	1.0	100.0(101)
	1000만원 이상	28.8	30.3	10.6	16.7	1.5	4.5	7.6	0.0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9.8	34.0	19.2	7.5	3.0	2.6	1.1	2.6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28.4	23.7	25.6	9.7	5.9	2.3	2.6	1.9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7.7	19.3	15.1	1.7	3.4	1.7	2.5	100.0(119)
	사무 종사자	34.3	22.2	21.0	10.9	5.6	2.0	2.0	2.0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5.9	20.9	31.3	6.5	8.5	1.5	4.0	1.5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8.3	29.2	12.5	29.2	12.5	4.2	0.0	4.2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7	20.7	44.8	5.2	3.4	3.4	1.7	0.0	100.0(58)
	자영업	29.9	27.3	24.7	2.6	6.5	2.6	3.9	2.6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제3절 노후생활 전망과 준비

가. 향후 5년 내의 가족변화와 부담 전망

본 절에서는 50대는 향후 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표 3-3〉을 통하여 향후 5년 이내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족내 변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43.0%이며, 다음은 가족 생활비(13.7%),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12.7%), 여가문화,

사회활동비(6.8%), (배우자)부모의 의료비(3.2%)의 순이다. 없다는 응답도 11.5%이다. 즉 현재 50대가 가까운 미래에 지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는 지출항목은 자녀의 결혼인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여자의 경우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의료비를 많이 걱정하는 것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현재의 걱정거리로 나(배우자)의 건강을 많이 언급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50대 전반부는 50대 후반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15.1%와 5.0%), 50대 후반부는 50대 전반부에 비하여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15.5%와 8.6%), 연령대별로 삶의 관심사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51.0%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광역시나 도지역 50대의 경우는 약 13%가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족변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교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가족생활비와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적게 언급하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이혼·별거·사별자의 경우는 생활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자녀수별로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이라는 응답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는 생활비와 여가문화·사회활동비를 언급하고 있어서 본인 중심의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부부가구는 자녀결혼비용과 더불어 의료비를 언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녀동거가구는 약 절반이 자녀의 결혼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상층일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고 부담되는 가족내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중하층의 경우 가족생활비라는 응답이 높은 점(30.4%와 22.2%)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월평균가구소득으로 비교해보아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을 언급한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적은 경우, 특히 200만원 미만의 경우 가족생활비를 언급한 비중이 높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결혼비용과 교육비용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의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자녀결혼

비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여가문화·사회활동비라는 응답이 많다.

〈표 3-3〉 50대의 특성별 향후 5년 이내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족 내 변화

(단위 : %, 명)

구분		자녀의 결혼비용	가족 생활비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없음	자녀의 교육비	나의 여가문화, 사회활동비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	계
전체		43.0 (430)	13.7 (137)	12.7 (127)	11.5 (115)	9.1 (91)	6.8 (68)	3.2 (32)	100.0(1000)
성별	남	42.1	14.5	8.5	12.5	11.1	8.0	3.4	100.0(497)
	여	43.9	12.9	16.9	10.5	7.2	5.6	3.0	100.0(503)
연령	50~54세	42.2	13.8	8.6	10.1	15.1	5.9	4.2	100.0(405)
	55~59세	43.5	13.6	15.5	12.4	5.0	7.4	2.5	100.0(595)
거주지역	서울	51.0	13.9	11.5	6.7	5.8	8.2	2.9	100.0(208)
	광역시	40.3	13.9	14.7	12.8	10.3	5.5	2.6	100.0(273)
	도	41.2	13.5	12.1	12.7	9.8	6.9	3.7	100.0(519)
학력 [㉠]	중졸 이하	23.4	24.3	25.2	10.8	8.1	4.5	3.6	100.0(111)
	고졸	39.2	15.6	16.1	10.7	7.5	8.0	2.9	100.0(411)
	대졸 이상	51.0	9.5	6.8	12.3	10.8	6.3	3.4	100.0(473)
혼인상태	미혼	0.0	20.0	10.0	40.0	0.0	20.0	10.0	100.0(20)
	유배우(동거)	45.1	12.6	12.5	10.8	9.5	6.4	3.0	100.0(922)
	이혼·별거·사별	24.1	29.3	17.2	12.1	5.2	8.6	3.4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0.0	23.1	38.5	15.4	0.0	15.4	7.7	100.0(13)
	1명	30.2	20.4	13.6	14.2	8.6	9.9	3.1	100.0(162)
	2명	47.6	12.7	11.7	10.6	9.4	5.5	2.5	100.0(651)
	3명	47.8	10.3	11.8	7.4	10.3	7.4	5.1	100.0(136)
	4명 이상	33.3	0.0	33.3	16.7	11.1	0.0	5.6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14.0	26.0	12.0	26.0	4.0	16.0	2.0	100.0(50)
	부부가구	31.8	14.9	18.7	19.4	4.2	7.6	3.5	100.0(289)
	자녀동거가구	50.9	12.2	10.0	6.6	11.9	5.9	2.5	100.0(640)
	기타가구	23.8	14.3	14.3	19.0	4.8	0.0	23.8	100.0(21)

〈표 3-3〉 계속

구분		자녀의 결혼비용	가족 생활비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없음	자녀의 교육비	나의 여가문화, 사회활동비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28.1	30.4	16.3	8.1	8.9	4.4	3.7	100.0(135)
	중하층	40.2	22.2	11.9	7.2	7.2	7.7	3.6	100.0(194)
	중간층	47.8	8.3	12.9	13.1	8.8	6.1	3.1	100.0(521)
	중상층	44.5	7.3	9.5	10.9	13.9	10.9	2.9	100.0(137)
	상위층	30.8	0.0	15.4	53.8	0.0	0.0	0.0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7	40.5	19.0	4.8	4.8	9.5	4.8	100.0(42)
	100~199만원	16.0	32.1	16.0	14.8	8.6	4.9	7.4	100.0(81)
	200~299만원	31.6	19.7	19.7	9.2	5.9	10.5	3.3	100.0(152)
	300~399만원	39.7	13.0	17.4	7.6	10.3	9.2	2.7	100.0(184)
	400~499만원	48.2	8.4	10.8	10.8	10.8	8.4	2.4	100.0(166)
	500~699만원	56.3	6.3	9.6	12.0	9.6	3.8	2.4	100.0(208)
	700~999만원	64.4	6.9	3.0	9.9	10.9	2.0	3.0	100.0(101)
	1000만원 이상	40.9	9.1	4.5	30.3	7.6	4.5	3.0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8.1	16.2	18.5	10.6	4.5	8.7	3.4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4.8	12.8	10.6	11.8	10.7	6.1	3.1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8.7	9.2	8.4	14.3	8.4	7.6	3.4	100.0(119)
	사무 종사자	52.0	11.3	9.7	9.3	11.7	3.6	2.4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5.8	16.4	10.0	9.5	10.9	4.5	3.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9.2	4.2	8.3	37.5	8.3	4.2	8.3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6	17.2	15.5	12.1	10.3	12.1	5.2	100.0(58)
	자영업	32.5	13.0	14.3	14.3	10.4	13.0	2.6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이렇듯 대부분이 미래에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내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가? 〈표 3-4〉에 의하면 38.8%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저축을 활용한다고 26.2%, 부동산 처분이 15.7%이다. 빚을 낸다거나 가족 및 타인에게 부탁하겠다는 응답도 있다. 특별한 자금을 마련할 만큼의 부담이 없다는 응답도 6.8%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며 성별 차이가 있어 남자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42.5%대 35.8%)과 빚을 낸다(12.5%대 3.6%) 높고 여자는 저축을 활용한다(33.8%대 18.5%)가 높다. 연령군별로는 50대 전반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후반부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높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도 지역에 비하여 광역시나 서울지역 거주자에게서 저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다.

학력별로 비교해보면 중졸 이하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51.5%에 달하고 있고,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저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27.3%와 27.9%로 중졸 이하의 16.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 무배우자에 비하여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높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저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에 비하여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는 부담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16.0%), 부부가구와 자녀동거 가구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16%대인 반면 비인가구와 기타가구는 5%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 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활동을 한다가 압도적으로 54.1%이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저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43.0%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27.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저축을 활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응답이 많다. 직업별로는 1차 산업이나 기능직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높다. 사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저축을 활용하거나 빚을 낸다는 응답이 높은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대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둘째, 50대 후반부로 갈수록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를 걱정하고 있다. 셋째, 소득수준이 낮은 50대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높으면 저축을 활용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출에 대처할 예정에 있다.

〈표 3-4〉 50대의 특성별 자금 마련 방법

(단위 : %, 명)

구분		경제활동을 한다	저축을 활용한다	부동산 처분	빚을 낸다	부담 없음	가족에게 부탁	가족이 아닌 타인	기타	계
전체		38.8 (388)	26.2 (262)	15.7 (157)	8.0 (80)	6.8 (68)	1.4 (14)	1.0 (10)	2.1 (21)	100.0(1000)
성별	남	42.5	18.5	15.7	12.5	7.6	0.6	0.6	2.0	100.0(497)
	여	35.2	33.8	15.7	3.6	6.0	2.2	1.4	2.2	100.0(503)
연령	50~54세	43.2	28.9	12.1	7.4	4.9	1.5	.7	1.2	100.0(405)
	55~59세	35.8	24.4	18.2	8.4	8.1	1.3	1.2	2.7	100.0(595)
거주지역	서울	38.0	30.8	16.8	6.7	3.4	1.9	1.4	1.0	100.0(208)
	광역시	39.9	26.7	14.7	8.1	7.7	1.1	0.4	1.5	100.0(273)
	도	38.5	24.1	15.8	8.5	7.7	1.3	1.2	2.9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51.4	16.2	15.3	6.3	2.7	4.5	0.9	2.7	100.0(111)
	고졸	38.4	27.3	15.6	8.5	4.9	1.5	1.5	2.4	100.0(411)
	대졸 이상	35.9	27.9	16.1	7.8	9.5	0.6	0.6	1.5	100.0(473)
혼인상태	미혼	45.0	15.0	0.0	5.0	30.0	0.0	0.0	5.0	100.0(20)
	유배우(동거)	38.2	26.6	16.6	8.2	6.2	1.2	1.0	2.1	100.0(922)
	이혼·별거·사별	46.6	24.1	6.9	5.2	8.6	5.2	1.7	1.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53.8	23.1	7.7	7.7	7.7	0.0	0.0	0.0	100.0(13)
	1명	36.4	30.2	14.2	7.4	7.4	1.2	1.2	1.9	100.0(162)
	2명	36.7	27.5	16.9	8.1	6.8	1.4	0.8	1.8	100.0(651)
	3명	47.8	19.1	15.4	8.8	2.9	2.2	1.5	2.2	100.0(136)
	4명 이상	50.0	11.1	11.1	5.6	5.6	0.0	5.6	11.1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48.0	14.0	6.0	8.0	16.0	6.0	0.0	2.0	100.0(50)
	부부가구	39.1	25.3	16.6	5.5	9.0	0.7	0.3	3.5	100.0(289)
	자녀동거가구	38.0	27.5	16.4	9.2	4.7	1.4	1.4	1.4	100.0(640)
	기타가구	38.1	28.6	4.8	4.8	19.0	0.0	0.0	4.8	100.0(21)

〈표 3-4〉 계속

구분		경제활동을 한다	저축을 활용한다	부동산 처분	빚을 낸다	부담 없음	가족에게 부탁	가족이 아닌 타인	기타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54.1	8.9	8.9	13.3	3.7	4.4	1.5	5.2	100.0(135)
	중하층	42.3	21.1	14.4	11.9	4.1	3.1	0.5	2.6	100.0(194)
	중간층	36.1	29.9	17.3	6.1	7.7	0.4	1.3	1.2	100.0(521)
	중상층	29.9	35.0	18.2	5.1	9.5	0.0	0.0	2.2	100.0(137)
	상위층	30.8	38.5	15.4	0.0	15.4	0.0	0.0	0.0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6	9.5	9.5	2.4	4.8	7.1	7.1	11.9	100.0(42)
	100~199만원	55.6	17.3	8.6	8.6	3.7	3.7	0.0	2.5	100.0(81)
	200~299만원	38.8	21.7	19.1	11.8	6.6	0.7	0.0	1.3	100.0(152)
	300~399만원	41.3	27.2	16.8	9.2	2.2	1.6	1.1	0.5	100.0(184)
	400~499만원	36.7	21.1	18.1	9.0	9.0	0.6	1.2	4.2	100.0(166)
	500~699만원	34.1	32.7	14.9	7.2	8.7	0.5	1.0	1.0	100.0(208)
	700~999만원	32.7	36.6	13.9	5.0	7.9	2.0	0.0	2.0	100.0(101)
1000만원 이상	34.8	31.8	16.7	3.0	12.1	0.0	1.5	0.0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7.2	33.6	20.0	4.9	7.2	1.9	1.1	4.2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3.0	23.5	14.1	9.1	6.7	1.2	1.0	1.4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7	27.7	13.4	5.9	11.8	0.8	0.8	0.8	100.0(119)
	사무 종사자	36.3	29.8	13.3	10.5	7.3	0.8	0.8	1.2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6.8	20.9	15.4	10.0	3.0	1.0	1.0	2.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50.0	12.5	8.3	8.3	20.8	0.0	0.0	0.0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7	13.8	15.5	5.2	5.2	6.9	0.0	1.7	100.0(58)
	자영업	51.9	15.6	15.6	11.7	2.6	0.0	2.6	0.0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나. 노후생활 전망

50대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3-5>에 의하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망하는 것은 건강 및 기능악화로 46.9%가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였다.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9.3%이다. 무료함이 8.4%, 소외 및 고독감 4.0%, 배우자와의 관계 2.9%, 자녀와의 관계 2.8%의 순이다. 즉 신체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응답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성별차이가 커, 남자는 건강 및 기능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동일하게 38.2%인데 비하여 여자는 건강 및 기능악화가 55.5%로 경제적 어려움의 20.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50대후반부의 경우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조금 높다(48.1%대 45.2%). 거주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다.

학력별로 비교해보면 대졸 이상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와 이혼·별거·사별자의 경우는 건강 및 기능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인데 비하여 미혼인 경우는 무료함과 소외 및 고독감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이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은 경우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혼인상태의 경우와 유사하게 1인가구의 경우 무료함과 소외 및 고독감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한편 경제상태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할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건강 및 기능악화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서 무료함이라는 응답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게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

62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표 3-5〉 50대의 특성별 예상되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

(단위 : %, 명)

구분		건강 및 기능 약화	경제적 어려움	무료함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와 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기타	계
전체		46.9 (469)	29.3 (293)	8.4 (84)	4.0 (40)	2.9 (29)	2.8 (28)	5.7 (57)	100.0(1000)
성별	남	38.2	38.2	7.6	4.0	1.8	3.2	6.8	100.0(497)
	여	55.5	20.5	9.1	4.0	4.0	2.4	4.6	100.0(503)
연령	50~54세	45.2	32.1	7.7	4.4	4.0	1.2	5.4	100.0(405)
	55~59세	48.1	27.4	8.9	3.7	2.2	3.9	5.9	100.0(595)
거주지역	서울	46.6	29.8	6.7	4.8	4.3	2.9	4.8	100.0(208)
	광역시	49.8	27.5	8.1	2.9	2.9	1.1	7.7	100.0(273)
	도	45.5	30.1	9.2	4.2	2.3	3.7	5.0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45.9	36.0	9.0	2.7	0.9	1.8	3.6	100.0(111)
	고졸	43.1	34.5	6.3	4.6	4.9	3.4	3.2	100.0(411)
	대졸 이상	50.7	22.8	10.1	3.8	1.7	2.5	8.2	100.0(473)
혼인상태	미혼	45.0	25.0	15.0	10.0	0.0	0.0	5.0	100.0(20)
	유배우(동거)	47.2	29.3	8.5	3.6	2.9	2.9	5.6	100.0(922)
	이혼·별거·사별	43.1	31.0	5.2	8.6	3.4	1.7	6.9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23.1	46.2	15.4	0.0	0.0	7.7	7.7	100.0(13)
	1명	42.0	32.7	6.8	4.3	3.1	3.1	8.0	100.0(162)
	2명	47.9	28.1	8.8	3.8	3.4	2.5	5.5	100.0(651)
	3명	51.5	29.4	8.1	2.9	0.7	3.7	3.7	100.0(136)
	4명 이상	38.9	33.3	0.0	11.1	5.6	5.6	5.6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40.0	32.0	10.0	12.0	2.0	0.0	4.0	100.0(50)
	부부가구	47.4	26.0	10.4	3.5	2.8	1.7	8.3	100.0(289)
	자녀동거가구	47.5	30.2	7.5	3.6	3.0	3.6	4.7	100.0(640)
	기타가구	38.1	42.9	4.8	4.8	4.8	0.0	4.8	100.0(21)

〈표 3-5〉 계속

구분		건강 및 기능 약화	경제적 어려움	무료함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와 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기타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35.6	55.6	2.2	1.5	2.2	0.7	2.2	100.0(135)
	중하층	38.1	42.8	3.6	5.2	2.6	3.6	4.1	100.0(194)
	중간층	49.7	22.3	11.1	4.2	3.6	2.5	6.5	100.0(521)
	중상층	58.4	13.9	11.7	4.4	0.7	5.1	5.8	100.0(137)
	상위층	61.5	0.0	0.0	0.0	7.7	0.0	30.8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1	50.0	2.4	7.1	2.4	0.0	0.0	100.0(42)
	100~199만원	35.8	40.7	6.2	4.9	3.7	2.5	6.2	100.0(81)
	200~299만원	40.1	38.2	8.6	4.6	3.9	2.6	2.0	100.0(152)
	300~399만원	42.9	39.1	7.1	2.7	2.7	1.6	3.8	100.0(184)
	400~499만원	51.2	20.5	10.2	5.4	4.2	4.2	4.2	100.0(166)
	500~699만원	49.5	23.6	8.7	3.4	2.4	4.3	8.2	100.0(208)
	700~999만원	61.4	15.8	6.9	4.0	1.0	2.0	8.9	100.0(101)
1000만원 이상	51.5	15.2	15.2	1.5	1.5	1.5	13.6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51.7	21.5	9.4	4.5	5.3	3.8	3.8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5.2	32.1	8.0	3.8	2.0	2.4	6.4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5	26.9	10.1	4.2	0.8	3.4	10.1	100.0(119)
	사무 종사자	48.8	29.0	8.1	3.2	2.0	0.8	8.1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3.3	36.8	7.0	3.5	2.5	3.5	3.5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5.8	29.2	8.3	4.2	0.0	0.0	12.5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2	43.1	6.9	5.2	3.4	3.4	1.7	100.0(58)
	자영업	46.8	27.3	9.1	5.2	2.6	3.9	5.2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표 3-6〉은 50대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액수는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2억~5억원으로 42.0%이며, 다음이 5억~10억원으로 30.3%이다. 2억원 미만은 14.5%, 10억~15억 미만이 8.6%, 15억원 이상이 4.6%이다. 반면 실제 확보한 액수를 살펴보면 35.8%는 2억~5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33.2%가 2억원 미만을 준비하고 있다. 5억~10억을 준비한 경우는 23.1%이다(〈표 3-7〉 참조). 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는 성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좀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별 차이는 커, 중졸 이하는 2억원 미만이 23.4%, 2억~5억원이 52.3%로 약 80%가 5억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졸은 각 %가 17.8%와 43.3%로 약 60%가 5억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졸 이상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이 약 50%에 불과하다. 대졸 이상의 경우는 35.5%가 5억~10억원을 필요액수로 생각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필요액수를 높게 생각하고 있어 5억~10억원이라는 응답이 31.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소 부부단위의 생활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혼의 경우는 15.4%가 2억원 미만으로, 60.0%가 2억~5억원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34.5%와 43.1%로 미혼에 비하여 조금 낮게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자녀수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미혼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태별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가 높다. 저소득층은 74.0%가 5만원 이하로 응답한데 비하여 중하층은 66.0%, 중간층은 55.5%, 중상층 34.3%, 상위층 0.0%이다. 반면 5억~10억원이라는 응답은 저소득층 17.8%, 중하층 24.7%, 중간층 31.9%, 중상층 44.5%이다. 상위층의 경우는 5억~10억원이라는 응답이 30.9%, 10억~15억원이 30.8%, 15억 이상이 38.5%이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경우 10억~15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일차산업종사자의 경우는 29.2%가 2억원 이하로 응답하고 있다.

〈표 3-6〉 50대의 특성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

(단위 : %, 명)

구분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원 이상	계
전체		14.5 (145)	42.0 (420)	30.3 (303)	8.6 (86)	4.6 (46)	100.0(1000)
성별	남	13.1	43.1	31.0	7.6	5.2	100.0(497)
	여	15.9	41.0	29.6	9.5	4.0	100.0(503)
연령	50~54세	12.3	44.7	28.4	9.9	4.7	100.0(405)
	55~59세	16.0	40.2	31.6	7.7	4.5	100.0(595)
거주지역	서울	10.6	37.5	35.1	9.1	7.7	100.0(208)
	광역시	18.3	40.7	29.3	7.7	4.0	100.0(273)
	도	14.1	44.5	28.9	8.9	3.7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23.4	53.2	17.1	5.4	0.9	100.0(111)
	고졸	17.8	43.3	27.7	7.1	4.1	100.0(411)
	대졸 이상	9.5	38.3	35.5	10.8	5.9	100.0(473)
혼인상태	미혼	10.0	60.0	15.0	10.0	5.0	100.0(20)
	유배우(동거)	13.3	41.5	31.8	8.6	4.8	100.0(922)
	이혼·별거·사별	34.5	43.1	12.1	8.6	1.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15.4	46.2	15.4	15.4	7.7	100.0(13)
	1명	12.3	41.4	34.6	8.0	3.7	100.0(162)
	2명	12.9	41.0	32.0	9.4	4.8	100.0(651)
	3명	23.5	44.9	21.3	5.1	5.1	100.0(136)
	4명 이상	27.8	38.9	27.8	5.6	0.0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30.0	52.0	10.0	4.0	4.0	100.0(50)
	부부가구	15.9	42.2	31.8	6.2	3.8	100.0(289)
	자녀동거가구	12.0	42.0	30.8	10.0	5.2	100.0(640)
	기타가구	33.3	14.3	42.9	9.5	0.0	100.0(21)

〈표 3-6〉 계속

구분		2억원 이하	2억~5억원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원 이상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37.8	37.0	17.8	5.2	2.2	100.0(135)
	중하층	10.8	55.2	24.7	6.2	3.1	100.0(194)
	중간층	12.5	43.0	31.9	8.3	4.4	100.0(521)
	중상층	5.8	28.5	44.5	14.6	6.6	100.0(137)
	상위층	0.0	0.0	30.8	30.8	38.5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2	40.5	9.5	4.8	0.0	100.0(42)
	100~199만원	28.4	51.9	12.3	3.7	3.7	100.0(81)
	200~299만원	22.4	49.3	21.7	4.6	2.0	100.0(152)
	300~399만원	14.1	47.3	28.8	7.6	2.2	100.0(184)
	400~499만원	12.0	44.6	31.3	7.8	4.2	100.0(166)
	500~699만원	7.7	38.9	36.5	11.1	5.8	100.0(208)
	700~999만원	5.0	29.7	47.5	12.9	5.0	100.0(101)
1000만원 이상	3.0	21.2	40.9	16.7	18.2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6.2	37.7	30.9	10.9	4.2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13.9	43.5	30.1	7.8	4.8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6	35.3	33.6	10.1	8.4	100.0(119)
	사무 종사자	8.5	44.0	31.9	10.1	5.6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9	44.8	29.4	6.0	2.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9.2	50.0	12.5	4.2	4.2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9	44.8	25.9	1.7	1.7	100.0(58)
	자영업	7.8	50.6	27.3	7.8	6.5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한편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자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 군별로는 50대 후반부가 조금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 5억원 이상이 43.2%로 광역시의 27.5%, 도지역의 28.0%에 비하여 월등이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14.4%가 5억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비하여 고졸은 24.5%, 대졸 이상은 40.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 52.2%가 5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여 5억 이상을 확보한 비율이 낮은 것이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32.7%가 5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 45.2%가 5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2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확보된 자산 규모가 크며,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확보된 자산 규모가 크다.

경제상태별로 비교해보면 확보된 자산규모가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4명중 3명이 2억원 미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하층은 동 비율이 43.8%이고 중간층은 24.4%이다. 중상층은 이보다 더 낮아 10.9%이며 상위층은 모두 2억 이상의 자산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간층의 경우도 64.7%가 5억원 미만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액수를 5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55.5%라는 점과 함께 생각해보면 중간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액수에 비하여 확보된 자산은 적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직업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관리자·전문가의 42.8%가 5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비교적 큰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56.9%가 2만원 미만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대는 자신의 노후와 관련하여 신체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실제 노후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확보하고 있어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확보하고 있다.

〈표 3-7〉 50대의 특성별 노후자금을 위해 확보한 자산(부동산 포함)

(단위 : %, 명)

구분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10억원	10억~ 20억원	20억원 이상	계
전체		33.2 (332)	35.8 (358)	23.1 (231)	5.3 (53)	2.6 (26)	100.0(1000)
성별	남	34.8	36.2	21.5	5.0	2.4	100.0(497)
	여	31.6	35.4	24.7	5.6	2.8	100.0(503)
연령	50~54세	37.8	33.1	22.0	5.7	1.5	100.0(405)
	55~59세	30.1	37.6	23.9	5.0	3.4	100.0(595)
거주지역	서울	26.9	29.8	29.3	10.1	3.8	100.0(208)
	광역시	35.2	37.4	21.6	4.8	1.1	100.0(273)
	도	34.7	37.4	21.4	3.7	2.9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53.2	32.4	9.9	1.8	2.7	100.0(111)
	고졸	37.5	38.0	19.0	3.6	1.9	100.0(411)
	대졸 이상	24.3	34.9	30.0	7.6	3.2	100.0(473)
혼인상태	미혼	50.0	25.0	20.0	5.0	0.0	100.0(20)
	유배우(동거)	30.8	36.4	24.4	5.6	2.7	100.0(922)
	이혼·별거·사별	65.5	29.3	3.4	0.0	1.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53.8	30.8	0.0	15.4	0.0	100.0(13)
	1명	33.3	35.8	24.7	4.3	1.9	100.0(162)
	2명	30.6	36.7	24.9	5.4	2.5	100.0(651)
	3명	39.0	35.3	18.4	2.2	5.1	100.0(136)
	4명 이상	50.0	22.2	0.0	27.8	0.0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56.0	30.0	10.0	2.0	2.0	100.0(50)
	부부가구	32.2	35.6	23.5	4.2	4.5	100.0(289)
	자녀동거가구	31.6	36.3	24.1	6.3	1.9	100.0(640)
	기타가구	42.9	38.1	19.0	0.0	0.0	100.0(21)

〈표 3-7〉 계속

구분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77.8	18.5	3.7	0.0	0.0	100.0(135)
	중하층	43.8	43.3	11.9	1.0	0.0	100.0(194)
	중간층	24.4	40.3	27.3	6.5	1.5	100.0(521)
	중상층	10.9	27.7	43.1	10.9	7.3	100.0(137)
	상위층	0.0	7.7	15.4	15.4	61.5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3.3	14.3	2.4	0.0	0.0	100.0(42)
	100~199만원	67.9	24.7	7.4	0.0	0.0	100.0(81)
	200~299만원	49.3	36.8	13.2	0.0	0.7	100.0(152)
	300~399만원	35.9	41.8	19.0	3.3	0.0	100.0(184)
	400~499만원	29.5	48.2	18.1	2.4	1.8	100.0(166)
	500~699만원	20.7	35.6	34.6	5.8	3.4	100.0(208)
	700~999만원	6.9	32.7	42.6	15.8	2.0	100.0(101)
1000만원 이상	3.0	18.2	36.4	22.7	19.7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8.7	34.3	27.5	6.4	3.0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34.8	36.3	21.5	4.9	2.4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4	32.8	31.9	6.7	4.2	100.0(119)
	사무 종사자	31.0	43.5	21.0	2.8	1.6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3.3	32.3	15.9	6.0	2.5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6.7	45.8	16.7	8.3	12.5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6.9	22.4	20.7	0.0	0.0	100.0(58)
	자영업	26.0	37.7	26.0	9.1	1.3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제4장 가치관

제1절 부양관

제2절 선호하는 재산처리 방식

4

가치관<<

제1절 부양관

청장년기에 매우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해온 50대(손양민, 2010)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다. 이들의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을 살펴보면, 다수인 71.0%가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14.1%,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8.2%, 자녀보다 더 여유 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6.7%이다(〈표 4-1〉 참조). 이는 부모의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책임으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반면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기간이 길다. 즉 결혼할 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가 23.3%, 직장이 생길 때까지가 22.4%이다. 집을 마련할 때까지도 5.4%이다. 반면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도 5.3%이다(〈표 4-2〉 참조).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를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은 특히 50대에서 급격히 높아지며 60대 70에게서는 더욱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외, 2013a).

제특성별로 부모부양관련 가치관을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73.8%대 68.2%). 연령군별로는 50대 후반부가 50대 전반부에 비하여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72.4% 대 68.9%).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에게서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학력별로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는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다. 자녀수별 차이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경제상태의 경우 소득계층별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그러나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저소득층과 중하층에서 높은 편이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도 월평균가구소득별 뚜렷한 가치관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으며 직업별로는 일차산업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경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표 4-1〉 참조).

〈표 4-1〉 50대의 특성별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
전체		71.0 (710)	14.1 (141)	8.2 (82)	6.7 (67)	100.0(1000)
성별	남	68.2	16.1	8.7	7.0	100.0(497)
	여	73.8	12.1	7.8	6.4	100.0(503)
연령	50~54세	68.9	12.1	9.9	9.1	100.0(405)
	55~59세	72.4	15.5	7.1	5.0	100.0(595)
거주지역	서울	67.8	16.8	7.7	7.7	100.0(208)
	광역시	77.3	11.0	6.6	5.1	100.0(273)
	도	69.0	14.6	9.2	7.1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70.3	16.2	9.9	3.6	100.0(111)
	고졸	70.8	15.8	5.8	7.5	100.0(411)
	대졸 이상	71.2	12.1	9.9	6.8	100.0(473)
혼인상태	미혼	50.0	20.0	20.0	10.0	100.0(20)
	유배우(동거)	71.6	13.7	7.9	6.8	100.0(922)
	이혼·별거·사별	69.0	19.0	8.6	3.4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53.8	23.1	15.4	7.7	100.0(13)
	1명	72.2	13.0	5.6	9.3	100.0(162)
	2명	73.1	13.5	7.7	5.7	100.0(651)
	3명	66.2	15.4	11.8	6.6	100.0(136)
	4명 이상	55.6	22.2	5.6	16.7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60.0	20.0	12.0	8.0	100.0(50)
	부부가구	72.7	11.8	9.0	6.6	100.0(289)
	자녀동거가구	71.1	14.7	7.7	6.6	100.0(640)
	기타가구	71.4	14.3	4.8	9.5	100.0(21)

〈표 4-1〉 계속

구분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68.1	17.8	9.6	4.4	100.0(135)
	중하층	70.1	17.0	6.7	6.2	100.0(194)
	중간층	72.6	12.9	8.6	6.0	100.0(521)
	중상층	70.1	12.4	6.6	10.9	100.0(137)
	상위층	61.5	0.0	15.4	23.1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9.0	11.9	16.7	2.4	100.0(42)
	100~199만원	66.7	18.5	6.2	8.6	100.0(81)
	200~299만원	68.4	19.1	7.9	4.6	100.0(152)
	300~399만원	75.0	15.8	5.4	3.8	100.0(184)
	400~499만원	68.1	12.0	10.2	9.6	100.0(166)
	500~699만원	71.2	13.9	8.7	6.3	100.0(208)
	700~999만원	75.2	10.9	7.9	5.9	100.0(101)
	1000만원 이상	72.7	4.5	7.6	15.2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70.2	13.6	6.8	9.4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71.3	14.3	8.7	5.7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9.7	16.0	7.6	6.7	100.0(119)
	사무 종사자	74.6	12.1	8.5	4.8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68.7	15.9	8.5	7.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79.2	4.2	12.5	4.2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9.0	15.5	13.8	1.7	100.0(58)
	자영업	68.8	16.9	6.5	7.8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부모의 부양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뚜렷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유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특성별 차이가 큰 편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결혼 할 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많다(45.1%대 38.0%).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결혼상태까지라는 응답이 50대 후반부의 경우 47.7%로 50대 전반부의 32.6%보다 월등이 높은 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은 50대 전반부가 29.9%로 50대 후반부의 18.8%보다 11.1%포인트 높다.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 또한 50대 전반부에서 높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은 낮은 반면 직장이 생길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고 결혼 할 때까지라는 응답 또한 높아 타 지역에 비하여 좀 더 늦은 단계까지를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력수준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에게서 결혼할때까지라는 응답이 월등이 높고 미혼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와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직장이 생길때까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이 생길때까지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와 학업을 마칠때까지라는 응답이 많아 부부가구나 자녀동거 가구에 비하여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시기가 빠른 경향이 있다.

한편 경제상태별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학업이나 직장이 생길 때까지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중간층 이상에서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많다. 즉 응답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는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경제활동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학업을 마칠때까지라는 응답이 25.9%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16.2%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직업별로는 일차산업 종사자의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나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대에게서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의무감은 약화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부양의식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부양기간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자녀의 결혼까지를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표 4-2〉 50대의 특성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결혼할 때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기타	계
전체		41.6 (416)	23.3 (233)	22.4 (224)	5.4 (54)	5.3 (53)	2.0 (20)	100.0(1000)
성별	남	38.0	27.0	21.9	4.4	6.0	2.6	100.0(497)
	여	45.1	19.7	22.9	6.4	4.6	1.4	100.0(503)
연령	50~54세	32.6	29.9	25.2	3.2	7.2	2.0	100.0(405)
	55~59세	47.7	18.8	20.5	6.9	4.0	2.0	100.0(595)
거주지역	서울	42.8	17.8	24.0	6.3	8.2	1.0	100.0(208)
	광역시	38.5	28.2	20.1	4.0	5.5	3.7	100.0(273)
	도	42.8	22.9	22.9	5.8	4.0	1.5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41.4	20.7	24.3	7.2	4.5	1.8	100.0(111)
	고졸	43.6	21.2	23.4	6.1	5.1	0.7	100.0(411)
	대졸 이상	40.2	25.6	21.4	4.4	5.3	3.2	100.0(473)
혼인상태	미혼	10.0	50.0	10.0	5.0	15.0	10.0	100.0(20)
	유배우(동거)	42.7	22.7	22.5	5.5	4.7	2.0	100.0(922)
	이혼·별거·사별	34.5	24.1	25.9	3.4	12.1	0.0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7.7	30.8	7.7	0.0	46.2	7.7	100.0(13)
	1명	42.0	24.1	19.1	4.3	8.0	2.5	100.0(162)
	2명	43.6	22.7	22.1	6.3	3.7	1.5	100.0(651)
	3명	39.0	20.6	30.9	2.9	5.1	1.5	100.0(136)
	4명 이상	44.4	22.2	22.2	5.6	0.0	5.6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24.0	40.0	16.0	4.0	12.0	4.0	100.0(50)
	부부가구	45.3	20.8	17.0	6.6	7.3	3.1	100.0(289)
	자녀동거가구	41.9	23.3	25.5	4.7	3.3	1.4	100.0(640)
	기타가구	23.8	19.0	19.0	14.3	23.8	0.0	100.0(21)

〈표 4-2〉 계속

구분		결혼할 때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기타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37.0	23.7	23.7	3.7	8.9	3.0	100.0(135)
	중하층	36.1	25.8	27.3	3.1	7.2	0.5	100.0(194)
	중간층	42.8	23.4	21.5	5.8	4.2	2.3	100.0(521)
	중상층	48.9	18.2	19.0	8.0	3.6	2.2	100.0(137)
	상위층	46.2	30.8	7.7	15.4	0.0	0.0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1	26.2	19.0	2.4	7.1	7.1	100.0(42)
	100~199만원	34.6	29.6	14.8	6.2	13.6	1.2	100.0(81)
	200~299만원	38.8	21.7	23.0	5.3	7.2	3.9	100.0(152)
	300~399만원	43.5	21.7	22.3	6.0	5.4	1.1	100.0(184)
	400~499만원	44.0	22.9	22.9	4.2	4.8	1.2	100.0(166)
	500~699만원	43.3	23.1	24.5	5.3	3.4	0.5	100.0(208)
	700~999만원	46.5	21.8	25.7	4.0	1.0	1.0	100.0(101)
	1000만원 이상	34.8	25.8	19.7	10.6	3.0	6.1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3.4	16.2	26.8	7.5	4.9	1.1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1.0	25.9	20.8	4.6	5.4	2.3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6.2	26.1	17.6	3.4	4.2	2.5	100.0(119)
	사무 종사자	38.7	26.6	22.6	5.2	4.4	2.4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4.3	19.4	22.9	5.5	6.0	2.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0.8	37.5	20.8	8.3	8.3	4.2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4.8	25.9	20.7	0.0	5.2	3.4	100.0(58)
	자영업	36.4	37.7	14.3	5.2	6.5	0.0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표 4-3〉 연령군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시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평생 계속	형편에 따라	계 (명)
전체	15.0	33.7	20.1	26.9	0.8	2.4	0.7	0.4	100.0 (1,000)
30대	30.4	38.3	14.6	14.6	1.2	0.4	0.4	0.0	100.0 (253)
40대	18.6	42.0	17.5	19.3	0.4	2.2	0.0	0.0	100.0 (274)
50대	4.9	34.8	26.2	30.3	0.4	2.5	0.8	0.0	100.0 (244)
60대	5.1	22.8	22.1	41.2	0.7	5.1	2.2	0.7	100.0 (136)
70대	3.2	9.7	23.7	52.7	2.2	4.3	1.1	3.2	100.0 (93)

주 : 2013년 10월 18일~10월 24일 기간 중 30대~7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에 기초한 결과임.

자료 : 정경희 외(2013). 2013년 고령사회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선호하는 재산처리 방식

〈표 4-4〉에 기초하여 50대가 재산 처리방법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균등 상속이 42.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33.7%이다. 이는 전통적인 장남중심 또는 아들 중심의 상속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고 8.2%, 사회에 환원이 6.0%,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이 3.7%,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이 3.5%, 장남에게만 상속 1.1%, 기타 1.2%이다.

이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가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는 응답이 36.0%로 남자의 31.4%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연령군별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며 거주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지만 서울지역 응답자에게서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고는 응답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은 낮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경우 골고루 주겠다고는 응답이 많아서 대졸 이상의 경우 동 응답이 46.5%이다. 반면 중졸 이하에서는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는 응답이 42.3%로 다른 학력군에 비하여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는 응답이 많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골고루 상속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의 경우는 자신을 위해 쓴다는 응답이 많다. 자녀수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고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골고루 상속이 조금 많은 편이다. 1인가구의 경우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율이 높다.

한편 경제상태별로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고 월평균소득별로도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약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은 응답자와 소득이 많은 응답자에게서 사회 환원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사례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골고루 상속하겠다고는 응답이 많다. 반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고거나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는 응답이 조금 높다. 즉 자녀의 부양의무와 연동하여 상속을 하겠다고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에게서 골고루 상속하겠다고는 응답이 가장 높다.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게서는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고는 선호가 발견되었으며 일차 산업종사자는 사회 환원이라는 응답도 매우 높다.

이러한 주요조사 결과는 재산처리방식이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에서 균등분

배나 자신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현재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적을수록 자신을 위해 쓰려는, 즉 자신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4〉 50대의 특성별 이상적인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골고루 상속	자신을 위해 쓰겠다	경제 사정이 나쁜 자녀	사회에 환원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기타	계
전체		42.6 (426)	33.7 (337)	8.2 (82)	6.0 (60)	3.7 (37)	3.5 (35)	1.1 (11)	1.2 (12)	100.0(1000)
성별	남	42.3	31.4	8.0	7.6	3.6	3.8	2.0	1.2	100.0(497)
	여	42.9	36.0	8.3	4.4	3.8	3.2	0.2	1.2	100.0(503)
연령	50~54세	43.5	33.3	6.9	6.9	2.5	4.0	1.2	1.7	100.0(405)
	55~59세	42.0	33.9	9.1	5.4	4.5	3.2	1.0	0.8	100.0(595)
거주지역	서울	44.7	35.6	10.6	2.9	2.4	2.4	0.0	1.4	100.0(208)
	광역시	42.5	31.9	7.0	6.6	6.2	2.9	1.5	1.5	100.0(273)
	도	41.8	33.9	7.9	6.9	2.9	4.2	1.3	1.0	100.0(519)
학력 ^{a)}	중졸 이하	36.0	42.3	5.4	2.7	4.5	3.6	2.7	2.7	100.0(111)
	고졸	39.9	36.0	9.0	5.1	3.4	4.4	1.0	1.2	100.0(411)
	대졸 이상	46.5	30.0	8.0	7.4	3.8	2.7	0.8	0.6	100.0(473)
혼인상태	미혼	15.0	45.0	10.0	10.0	0.0	5.0	5.0	10.0	100.0(20)
	유배우(동거)	42.6	33.8	8.4	5.9	3.6	3.7	1.1	1.0	100.0(922)
	이혼·별거·사별	51.7	27.6	5.2	6.9	6.9	0.0	0.0	1.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38.5	23.1	7.7	15.4	0.0	0.0	15.4	0.0	100.0(13)
	1명	34.6	39.5	6.8	7.4	3.1	4.9	1.9	1.9	100.0(162)
	2명	45.2	32.1	8.6	5.1	4.1	3.2	0.8	0.9	100.0(651)
	3명	45.6	33.1	6.6	7.4	2.9	3.7	0.0	0.7	100.0(136)
	4명 이상	33.3	38.9	16.7	5.6	5.6	0.0	0.0	0.0	100.0(18)
가구형태	1인가구	38.0	36.0	6.0	10.0	2.0	4.0	0.0	4.0	100.0(50)
	부부가구	38.8	32.9	9.7	8.3	3.1	3.1	2.1	2.1	100.0(289)
	자녀동거가구	45.2	33.6	7.7	4.4	4.2	3.8	0.6	0.6	100.0(640)
	기타가구	28.6	42.9	9.5	14.3	0.0	0.0	4.8	0.0	100.0(21)

〈표 4-4〉 계속

구분		골고루 상속	자신을 위해 쓰겠다	경제 사정이 나쁜 자녀	사회에 환원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기타	계
소득계층	저소득층	35.6	37.0	11.1	7.4	1.5	4.4	0.7	2.2	100.0(135)
	중하층	43.3	35.1	4.6	5.2	4.1	3.6	2.1	2.1	100.0(194)
	중간층	44.5	32.4	9.4	4.6	4.0	3.3	0.8	1.0	100.0(521)
	중상층	41.6	35.8	5.8	8.8	3.6	2.9	1.5	0.0	100.0(137)
	상위층	38.5	7.7	7.7	30.8	7.7	7.7	0.0	0.0	100.0(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0.5	33.3	2.4	9.5	0.0	9.5	0.0	4.8	100.0(42)
	100~199만원	32.1	43.2	8.6	8.6	2.5	0.0	2.5	2.5	100.0(81)
	200~299만원	40.8	35.5	9.2	3.3	4.6	3.3	2.0	1.3	100.0(152)
	300~399만원	40.8	32.1	12.0	3.8	3.8	5.4	1.1	1.1	100.0(184)
	400~499만원	44.0	34.9	9.6	3.0	3.6	4.2	0.6	0.0	100.0(166)
	500~699만원	47.1	34.1	4.8	8.7	3.4	1.0	0.0	1.0	100.0(208)
	700~999만원	44.6	28.7	9.9	5.9	5.9	3.0	2.0	0.0	100.0(101)
1000만원 이상	45.5	25.8	3.0	12.1	3.0	6.1	1.5	3.0	100.0(66)	
근로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8.5	35.1	9.8	4.9	5.3	5.3	0.0	1.1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44.1	33.2	7.6	6.4	3.1	2.9	1.5	1.2	100.0(735)
직업 ^{b)}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0.3	37.0	10.9	5.9	3.4	2.5	0.0	0.0	100.0(119)
	사무 종사자	50.8	32.7	4.8	5.6	1.6	2.8	0.4	1.2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2.8	33.3	10.0	5.5	3.0	2.0	2.5	1.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25.0	37.5	4.2	20.8	8.3	4.2	0.0	0.0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9	25.9	8.6	6.9	8.6	5.2	5.2	1.7	100.0(58)
	자영업	41.6	33.8	3.9	7.8	2.6	3.9	2.6	3.9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제5장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제1절 삶의 만족도

제2절 행복도

5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

제1절 삶의 만족도

본 조사에서는 지천명이라는 50대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묻고 있다. 먼저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분포는 성공한 편이 79.9%, 실패한 편이 20.1%로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1> 참조).

성별로는 남성(75.7%)보다 여성(84.1%)이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전반부가 약간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유배우(동거)가 81.9%, 미혼이 70.0%, 이혼·별거·사별이 5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녀수별로는 성공한 편이 2명 83.1%로 가장 높고 3명 80.1%, 4명 이상 77.8%, 1명 70.4%, 자녀없음 53.8% 순으로 나타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 및 부부가구가 각각 81.1%, 91.0%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이고 부모와 자녀 76.2%, 1인가구 6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계층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은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3.7%인데 비해 상위층은 100.0% 모두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것이 특징이다. 직업별로는 성공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91.7%로 가장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4%, 사무 종사자 84.7%, 자영업 8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 50대의 특성별 삶의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성공한편	비교적 실패한편	매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실패한편	성공한편	계
전체		6.4(64)	73.5(735)	17.7(177)	2.4(24)	20.1(201)	79.9(799)	100.0(1000)
성별	남	6.8	68.8	21.7	2.6	24.3	75.7	100.0(497)
	여	6.0	78.1	13.7	2.2	15.9	84.1	100.0(503)
연령	50~54세	6.7	74.3	17.0	2.0	19.0	81.0	100.0(405)
	55~59세	6.2	72.9	18.2	2.7	20.8	79.2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4.8	75.0	17.3	2.9	20.2	79.8	100.0(208)
	광역시	6.6	71.1	19.4	2.9	22.3	77.7	100.0(273)
	도	6.9	74.2	17.0	1.9	18.9	81.1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6.3	66.7	22.5	4.5	27.0	73.0	100.0(111)
	고졸	5.4	72.0	20.4	2.2	22.6	77.4	100.0(411)
	대졸 이상	7.4	76.3	14.2	2.1	16.3	83.7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0.0	70.0	15.0	15.0	30.0	70.0	100.0(20)
	유배우(동거)	6.7	75.2	16.6	1.5	18.1	81.9	100.0(922)
	이혼·별거·사별	3.4	48.3	36.2	12.1	48.3	51.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23.1	30.8	23.1	23.1	46.2	53.8	100.0(13)
	1명	4.3	66.0	25.9	3.7	29.6	70.4	100.0(162)
	2명	6.8	76.3	15.2	1.7	16.9	83.1	100.0(651)
	3명	5.9	74.3	19.1	0.7	19.9	80.1	100.0(136)
	4명 이상	11.1	66.7	22.2	0.0	22.2	77.8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6.0	54.0	24.0	16.0	40.0	60.0	100.0(50)
	부부가구	9.3	71.6	17.0	2.1	19.0	81.0	100.0(289)
	자녀동거가구	5.0	76.1	17.3	1.6	18.9	81.1	100.0(640)
	기타가구	9.5	66.7	23.8	0.0	23.8	76.2	100.0(21)

〈표 5-1〉 계속

(단위 : %, 명)

구분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성공한편	비교적 실패한편	매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실패한편	성공한편	계
전체		6.4(64)	73.5(735)	17.7(177)	2.4(24)	20.1(201)	79.9(799)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3.0	40.7	44.4	11.9	56.3	43.7	100.0(135)
	중하층	3.6	62.9	30.9	2.6	33.5	66.5	100.0(194)
	중간층	6.9	82.7	10.0	0.4	10.4	89.6	100.0(521)
	중상층	8.8	86.9	3.6	0.7	4.4	95.6	100.0(137)
	상위층	38.5	61.5	0.0	0.0	0.0	100.0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4	52.4	31.0	14.3	45.2	54.8	100.0(42)
	100~199만원	8.6	44.4	37.0	9.9	46.9	53.1	100.0(81)
	200~299만원	4.6	67.1	26.3	2.0	28.3	71.7	100.0(152)
	300~399만원	4.9	73.9	20.1	1.1	21.2	78.8	100.0(184)
	400~499만원	4.8	76.5	17.5	1.2	18.7	81.3	100.0(166)
	500~699만원	8.2	79.8	10.6	1.4	12.0	88.0	100.0(208)
	700~999만원	6.9	90.1	3.0	0.0	3.0	97.0	100.0(101)
	1000만원 이상	12.1	83.3	4.5	0.0	4.5	95.5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8	75.5	18.1	2.6	20.8	79.2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7.3	72.8	17.6	2.3	19.9	80.1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	82.4	10.1	2.5	12.6	87.4	100.0(119)
	사무 종사자	8.1	76.6	14.1	1.2	15.3	84.7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5.5	65.7	25.4	3.5	28.9	71.1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6.7	75.0	4.2	4.2	8.3	91.7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9	62.1	25.9	5.2	31.0	69.0	100.0(58)
	자영업	10.4	71.4	18.2	0.0	18.2	81.8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50대와 다른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는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 0점, 매우 만족이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6.33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대의 삶의 만족도는 6.42로 60대 이상보다는 높고 20대 이하부터 40대까지보다는 낮다(〈표5-2〉 참조).

〈표 5-2〉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일반국민조사, 2014년

(단위 : %)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①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만족 ⑩	만족도
전체	1.16	1.32	3.02	5.66	6.19	27.82	9.56	17.19	16.85	8.07	3.17	6.33
20대 이하	2.28	0.71	2.14	5.71	5.14	20.83	10.41	18.26	18.69	10.84	4.99	6.68
30대	0.13	0.80	1.60	4.28	6.42	28.88	8.42	21.12	16.58	8.02	3.74	6.71
40대	1.11	0.86	2.46	4.93	5.30	29.56	11.82	17.00	17.12	7.76	2.09	6.67
50대	1.06	2.52	3.58	6.62	7.28	29.40	8.21	14.97	17.35	6.49	2.52	6.42
60대 이상	1.27	1.90	5.70	6.80	6.96	30.22	8.54	14.24	14.08	7.59	2.69	6.03

주 : 1) '___님께서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는 전국 3,648명을 대상으로 실시.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 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셋째,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다.

제2절 행복도

현재의 50대는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행복한 편이라고 느낀다'가 79.8%로 가장 높고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 10.9%, '불행한 편이라고 느낀다' 8.5%,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 0.8% 순으로,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 분포가 90.7%로 다수이다(〈표 5-3〉 참조).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보다 높고, 50대 전반부가 후반부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력별 행복도는 대졸 이상이 93.4%로 가장 높고, 고졸 89.3%, 중졸 84.75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배우인 경우가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보다 행복도가 높다. 자녀수에서는 2명인 경우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의 94.5%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90.5%, 부모와 자녀 85.7%, 1인가구 7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50대의 특성별 행복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	행복한 편이라고 느낀다	불행한 편이라고 느낀다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	불행함	행복함	계
전체		10.9(109)	79.8(798)	8.5(85)	0.8(8)	9.3(93)	90.7(907)	100.0(1000)
성별	남	11.3	78.1	9.9	0.8	10.7	89.3	100.0(497)
	여	10.5	81.5	7.2	0.8	8.0	92.0	100.0(503)
연령	50~54세	11.9	80.2	7.2	.7	7.9	92.1	100.0(405)
	55~59세	10.3	79.5	9.4	.8	10.3	89.7	100.0(595)
거주 지역	서울	9.6	81.7	7.7	1.0	8.7	91.3	100.0(208)
	광역시	8.8	80.2	10.3	0.7	11.0	89.0	100.0(273)
	도	12.5	78.8	7.9	0.8	8.7	91.3	100.0(519)
학력	중졸 이하	10.8	73.9	14.4	0.9	15.3	84.7	100.0(111)
	고졸	9.0	80.3	10.0	0.7	10.7	89.3	100.0(411)
	대졸 이상	12.7	80.8	5.7	0.8	6.6	93.4	100.0(473)
혼인 상태	미혼	0.0	70.0	25.0	5.0	30.0	70.0	100.0(20)
	유배우(동거)	11.3	81.1	7.2	0.4	7.6	92.4	100.0(922)
	이혼·별거·사별	8.6	62.1	24.1	5.2	29.3	70.7	100.0(58)
자녀수	자녀없음	0.0	76.9	15.4	7.7	23.1	76.9	100.0(13)
	1명	10.5	77.2	11.1	1.2	12.3	87.7	100.0(162)
	2명	11.7	81.1	6.9	0.3	7.2	92.8	100.0(651)
	3명	10.3	78.7	9.6	1.5	11.0	89.0	100.0(136)
	4명 이상	11.1	77.8	11.1	0.0	11.1	88.9	100.0(18)
가구 형태	1인가구	4.0	70.0	20.0	6.0	26.0	74.0	100.0(50)
	부부가구	14.5	79.9	5.2	0.3	5.5	94.5	100.0(289)
	자녀동거가구	9.8	80.6	8.9	0.6	9.5	90.5	100.0(640)
	기타가구	9.5	76.2	14.3	0.0	14.3	85.7	100.0(21)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서 상위층은 100.0% 모두 행복하다고 느끼고 저소득층은 71.9%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400만원대 이상은 90%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300만원대 이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9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유무에 따른 행복도에서는 일을 하는 경우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계속

(단위 : %, 명)

구분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	행복한 편이라고 느낀다	불행한 편이라고 느낀다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	불행함	행복함	계
전체		10.9(109)	79.8(798)	8.5(85)	0.8(8)	9.3(93)	90.7(907)	100.0(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5.2	66.7	23.7	4.4	28.1	71.9	100.0(135)
	중하층	10.3	73.7	15.5	0.5	16.0	84.0	100.0(194)
	중간층	9.6	86.6	3.8	0.0	3.8	96.2	100.0(521)
	중상층	20.4	76.6	2.2	0.7	2.9	97.1	100.0(137)
	상위층	30.8	69.2	0.0	0.0	0.0	100.0	100.0(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8	66.7	23.8	4.8	28.6	71.4	100.0(42)
	100~199만원	7.4	63.0	25.9	3.7	29.6	70.4	100.0(81)
	200~299만원	5.3	82.9	11.8	0.0	11.8	88.2	100.0(152)
	300~399만원	8.2	79.9	11.4	0.5	12.0	88.0	100.0(184)
	400~499만원	10.8	86.1	2.4	0.6	3.0	97.0	100.0(166)
	500~699만원	13.5	83.2	2.9	0.5	3.4	96.6	100.0(208)
	700~999만원	15.8	83.2	1.0	0.0	1.0	99.0	100.0(101)
	1000만원 이상	24.2	69.7	6.1	0.0	6.1	93.9	100.0(66)
근로 유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7.2	80.0	11.7	1.1	12.8	87.2	100.0(265)
	일을 하고 있다	12.2	79.7	7.3	0.7	8.0	92.0	100.0(7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4	81.5	4.2	0.8	5.0	95.0	100.0(119)
	사무 종사자	12.9	79.4	6.9	0.8	7.7	92.3	100.0(24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4	79.6	8.5	0.5	9.0	91.0	100.0(20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8.3	91.7	0.0	0.0	0.0	100.0	100.0(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5	69.0	13.8	1.7	15.5	84.5	100.0(58)
	자영업	10.4	81.8	7.8	0.0	7.8	92.2	100.0(77)

주 : a) 학력관련 무응답 5명을 제외함.

b) 직업관련 무응답 8명 제외함.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였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음 0점, 매우 행복 10점으로 응답하도록 11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6.18이고 20대 이하는 6.53, 30대는 6.58로 가장 높고 40대 이후 행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행복도는 6.16으로 국민 전체의 행복도보다 다소 낮으며, 60대 이상보다는 높고 20대 이하부터 40대까지 보다는 낮다(〈표5-4〉참조).

〈표 5-4〉 연령대별 행복도 : 일반국민조사, 2014년

(단위 : %)

구분	전혀 행복 하지 않음 ①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행복 ⑩	행복도
전체	1.20	1.31	2.91	5.37	4.61	28.27	9.50	14.85	17.30	9.09	5.57	6.18
20대 이하	2.14	1.14	0.85	3.85	3.70	25.93	9.54	12.25	20.37	10.11	10.11	6.53
30대	0.53	1.20	2.67	5.34	4.01	24.17	10.28	16.56	16.42	12.02	6.81	6.58
40대	1.11	0.49	2.35	3.70	5.06	30.99	9.01	16.30	17.90	8.89	4.20	6.36
50대	0.93	2.52	3.19	7.04	5.44	29.48	8.50	14.61	17.26	7.44	3.59	6.16
60대 이상	1.27	1.27	5.85	7.44	4.59	30.85	10.28	14.24	14.24	6.80	3.16	5.78

주 : 1)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2)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는 전국 3,648명을 대상으로 실시.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계층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이는 앞의 만족도와 동일하다. 셋째, 연령별 삶의 행복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층인 50대는 2015년 현재 전 인구의 16.0%인 약 81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의 생활습관 및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1,000명 대상의 전화조사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이며, 신뢰수준은 95%±3.1%p이다. 50대에 대한 전화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흡연은 82.1%가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14.1%로 조사되었다. 음주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음주하는 비율이 86.0%이고, 6회 이상 음주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5%에 불과하지만, 81.3%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매일 흡연율과 주 6회 이상 음주율이 높다. 반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패턴은 이혼·별거·사별, 1인가구 등의 취약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50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의 개수는 3개가 22.0%로 가장 많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5.6%이다. 주요 특징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활동 향유 정도가 낮고, 사회활동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및 노후생활과 관련해서는 첫째, 50대의 4명중 3명은 가족과의 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둘째, 50대의 대부분(90.9%)이 현재 걱정거리(불안요인)를 갖고 있으며, 자녀 교육 및 결혼(28.8%), 나(배우자)의 건강(26.4%)와 은퇴후 생계(23.9%)와 같이 자녀의 교육 및 결혼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고민과 더불어 자신과 배우자의 노화진전에 따른 건강강화와 생계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의 결혼비용과 가족 생활비, 나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향후 5년 이내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50대의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준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내 변화에 대하여 4명중 1명만이 저축 활용(26.2%)을 생각하고 있고, 경제활동(38.8%)이나 부동산 처분(15.7%), 빚을 내거나 가족 및 타인에게 부탁하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에 비하여 실제로 확보한 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이다.

넷째,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망하는 것은 건강 및 기능약화(46.9%)와 경제적 어려움(29.3%)이 절대적이며, 무료함,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섯째, 50대는 노부모에 대해서는 다수인 71.0%가 부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기간이 길다. 즉 결혼할 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1.6%에 달하고 있다.

특성별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가족관의 대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가 충분하여, 경제적 자원과 가족 자원의 수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50대일수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액수를 높게 예상하고 있으며 준비를 하고 있고, 자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크다는 특징도 도출되었다. 한편, 같은 50대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0대들은 자신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행복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다. 둘째,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남성, 50대 후반부, 광역시 거주자,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연구결과 나타난 주요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대의 대다수(81.3%)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5%에 이르고 있고, 매일 흡연율이 14.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하지 못함은 개인차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흡연을 감소정책 및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50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문화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69.4%이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50대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매우 취약할 것이라 점이 조사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활동 향유 정도가 낮고, 사회활동도 미약하다. 이를 감안한 문화바우처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50대의 다수가 가족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이 향후 수년 내에 완전 은퇴 상태에 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즉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5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에 비하여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액수가 적다. 또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액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을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있는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이소정 외, 2010). 부족한 소득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실적일 것이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현재 50대의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의 결혼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에서 벗어난 균형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섯째,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먼저 배우자

가 없거나, 자녀가 없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50대를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집단이 주요 정책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희 외(2013b)의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11.1%가 경제, 건강, 사회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도출된 바 있다.

여섯째, 50대들은 자신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행복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다. 또한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중졸 이하, 이혼·별거·사별, 자녀 없는 50대, 1인가구,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50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를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국회예산정책처. (2009).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
- 관계부처합동. (2012).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
- 권성희역. (2015).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Harry S. Dent, Jr의 The Demographic Cliff.
청림출판
- 손양민. (2010). 밥·돈·자유 :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 보건복지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 이삼식·김재호·강은나·박수지·정경희 외. (2013).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 연구. 보
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정경희·김경래·이은진·강인·이금룡·한정란. (201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
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상철·염주희·황남희·강성호 외. (2013a). 2013년 고령사회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염주희·황남희·김정석·이금룡·오신휘. (2013b).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13). 2013년 사회조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 현대경제연구원. (2009).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 Cantor, M. H.(1979). "Neighbors and Friends :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Vol.1, pp. 435~463.
- OECD. (2012). 글로벌 경제 장기 전망.
- Ward, R. A.,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 A Research
Agender", *The Gerontologist*, Vol.25, No.1, pp. 55~61. 1985.

『50대 생활습관 및 인식조사』

ID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5년 50대(베이비 부머) 생활습관 및 인식조사』를 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문화일보입니다. 본 설문은 주로 50대인 베이비 부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대책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 화 일 보

전화	0) -		
거주지역 (주소)	_____ (도, 광역·특별시)		
태어난 년도	____년(만 세) (1956. 4. 30 ~ 1965. 5. 1. 생) ※ 2015. 5. 1 기준 50세 이상 ~ 59세 이하만 조사 대상임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생활현황〉

1.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매일 피운다
- ② 가끔 피운다
- ③ 과거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④ 전혀 피우지 않는다

2. 술자리는 1주일에 몇 번 가랑 갖고 있습니까?

- ① 0회 ② 1~2회 ③ 3~4회
- ④ 4~5회 ⑤ 6회 이상

3. 건강을 위해 등산, 자전거, 걷기, 조깅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규칙적 운동이란 1회 30분 이상, 1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말함)

- ① 안한다. ② 1 주일에 1~2회 정도 한다
- ③ 1 주일에 3~4회 정도 한다 ④ 거의 매일 한다

4. 귀하의 현재 건강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건강이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안 좋다 편이다

①-----②-----③-----④

5. 귀하는 영화, 연극, 미술 관람 및 음악회 참가 등 문화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사실상 하지 않는다.
- ② 아주 가끔 한다.
- ③ 한달에 한두번 하는 편이다
- ④ 주말마다 가는 편이다.
- 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한다.

6. 귀하가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동창회, 동호회 등)의 수는 몇 개입니까?

 개

〈가족관계〉

7. 귀하께서는 배우자나 자녀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 ① 배우자와 자녀 없음 ① 거의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 ② 대화를 못하는 편이다. ③ 대화를 하는 편이다
- ④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다.

8. 현재 귀하의 가장 큰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 ① 은퇴후 생계
- ② 자녀교육 및 결혼
- ③ 나(와 배우자)의 건강
- ④ 부채 상황
- ⑤ 배우자와의 관계
- ⑥ 소외 및 고독감
- ⑦ 기타(____주관식_____)

〈노후생활〉

9. 향후 5년 이내에 귀하의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족 내 변화는 무엇입니까?

10.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 ① 부담없음
- ① 저축을 활용한다 ② 부동산을 처분한다 ③ 빚을 낸다
- ④ 가족에게 부탁한다
- ⑤ 가족이 아닌 타인(친인척, 이웃, 지인 등)에게 부탁한다
- ⑥ 본인(배우자)이 경제활동을 한다
- ⑦ 기타()

11. 귀하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와의 관계 ② 자녀와의 관계 ③ 건강 및 기능 악화
- ④ 경제적 어려움 ⑤ 소외 및 고독감 ⑥ 무료함(소일거리 없음)
- ⑦ 기타()

DQ 4.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DQ 5. 귀하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세후)는 얼마입니까?

(※가구원 전체의 가구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699만원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DQ 6.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④ 무응답(제시하지 않음)

DQ 7.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일을 하고 있다.

DQ 7-1. 일을 하고 있다면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